

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教授 林 春 植

移動沐浴車 沐浴서비스 受惠老人 事例研究

- 서울特別市 盧原區 受惠老人의 生活認識을 中心으로 -

A Case Study on the Aged Benefitting from the
Bathing Service of the Mobile Bathing Car

2000年 8月 日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福祉行政學科

社會福祉專攻

趙 萬 豪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林 春 植

移動沐浴車 沐浴서비스 受惠老人 事例研究

- 서울特別市 盧原區 受惠老人의 生活認識을 中心으로 -

A Case Study on the Aged Benefitting from the
Bathing Service of the Mobile Bathing Car

위 論文을 行政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 함

2000年 8月 日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福社行政學科

社會福祉專攻

趙 萬 豪

趙萬豪의 行政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2000 年 8 月 日

審査委員長 ②인

審査委員 ②인

審査委員 ②인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장 이론적 고찰	4
제 1 절 노인복지와 목욕서비스의 의의	4
제 2 절 이동목욕차 목욕서비스의 목적	6
제 3 절 이동목욕차 목욕서비스 사업의 실태	10
제 3 장 연구방법	15
제 1 절 연구방법의 과정	15
제 2 절 개별심층면접 연구방법	16
1. 연구절차	16
2. 대상자 선정 및 면접횟수	17
3. 연구주제 및 면접지침	18
4. 개별심층면접 실시과정	19
5. 분석 및 해석	20

제 4 장 결과 및 해석	22
제 1 절 일반적 특성	22
1. 사례 선정	22
2. 노인세대의 시대적 특수성	23
3. 사례노인별 인구학적 특성 및 생활사	23
제 2 절 개별심층 면접 사례	37
1. 노년기에 대한 인식	37
2. 건강 태도에 대한 의견	45
3. 이동목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54
4. 인생회상 및 평가	65
 제 5 장 결 론	83
 참 고 문 헌	89
 ABSTRACT	91

표 목 차

<표 4-1> 사례 노인 일반적 특성	24
<표 4-2> 사례 노인의 생활관련 상황	25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현대사회는 급격한 산업화·도시화의 영향으로 핵가족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우리 사회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영양상태가 좋아지고 보건위생 수준의 향상, 의료기술의 발달 그리고 환경위생의 개선 등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나 1999년 12월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총 인구의 6.8%인 3백2십만4천여 명이고, 2020년에는 13.2%인 6백89만9천 여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추정되어¹⁾ 점진적인 고령화 사회의 인구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현상과 아울러 핵가족화, 소가족화 등의 가족구조 변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가족의 전통적 부양의식의 변화, 노인단독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전통적으로 요보호 노인의 수발(Primary Caregiver)과 간호를 담당해 왔던 가족의 부양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기존의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제도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노인부양제도 즉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서비스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덜어 주는 다양한 사회적 수단을 통한 정책개발의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지만 가족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노인복지서비스 등 사회적 여건은 현재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²⁾

1)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금사업안내, 2000, p. 1.

2) 임춘식,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노인복지연구 통권1호, 한국노인복지학회, 1998, p. 9.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노년기의 장기화, 가족부양체계의 기능약화를 대체할만한 노인복지서비스의 부재 등으로 인한 요보호 노인의 일상생활 수발문제는 노인 자신뿐만 아니라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 성원에게도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물론 이를 대체할만한 노인복지서비스의 부재 등으로 인한 요보호 노인의 일상생활 수발문제는 노인 자신뿐만 아니라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 성원에게도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물론 앞으로 노인들을 가정에서 가족들에 의해서만 보호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특히 노인들은 각종 신체적 기능의 저하와 질병으로 인하여 신체적 고통과 일상생활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뇌졸중이나 치매노인의 증가로 가정 내에서의 부양에 한계가 있어 최근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가복지 서비스가 새로운 노인복지서비스 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 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만성질환 유병율은 86.7%나 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도시 85.3%, 농촌 89.1% 그리고 성별로는 남자노인 77.4%, 여자노인 92.2%로 집계되고 있으며 특히 1998년도 치매노인은 21만 8천96명으로 치매유병율도 8.3%로 나타나³⁾ 사회환경의 변화와 현실은 노인문제와 관련하여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측면에서 적절한 대책마련의 시급성을 요청 받고 있다.

왜냐하면 와병중인 노인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지만 반면 가족들도 와병중인 노인의 치료와 간호에 지출되는 과도한 의료비와 노인 수발로 인한 정신적 부담에 심한 고통을 받고 있어 이러한 고통 때문에 노인에게 무관심, 방임, 폭행, 학대 때

3) 보건복지부, 전게서, p. 2.

문에 노인의 인권문제까지 도전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내의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사업을 통하여 가사적 서비스인 세탁이나 목욕 등 와병노인 보건위생과 관련한 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적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에 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우리 나라에서도 노인의 신체적 보건위생문제와 관련한 또 하나의 수요층은 뇌졸중, 치매노인 및 각종 장애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방문 이동목욕 서비스로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의 위기를 극복해 주기 위한 이동목욕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이동목욕 서비스의 주목적은 와병으로 인하여 목욕상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주택구조상 가정 내에서 목욕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목욕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가족이 없는 등의 사유로 노인이 신체적 청결을 위한 목욕을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목욕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이동목욕차 목욕서비스는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와병노인을 대상으로 가정봉사원 대상노인의 가정을 방문 목욕설비를 갖춘 전용 목욕차량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인력으로부터 목욕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동목욕차 목욕서비스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동목욕차 목욕서비스 수혜노인을 대상으로 목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사례별로 분석하여 초기단계에 있는 우리 나라 이동목욕차 목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바람직한 서비스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의 목적이 있다.

제 2 장 이론적 고찰

제 1 절 노인복지와 목욕서비스의 의의

사회복지는 넓게는 현대화, 좁게는 산업화의 과정에서 생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해진 개인, 집단 및 지역사회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하는 사회적 제도이다. 노인복지는 노인개인과 집단으로서의 문제는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의 한 분야이다. 사회복지란 단순한 자선적인 노력이나 임기응변적인 활동이 아니고 적어도 인간과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계획, 조직 및 서비스 전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이다.

노인복지란 한마디로 노인이 복리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사회적 활동으로 사회복지 실천의 한 분야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노인복지란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련된 공적 및 사적 차원에서의 조직적 제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인간다운 생활이란 그 노인이 속한 국가사회의 발전적 수준에 비추어 의식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사는 것을 뜻하며,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되는 것은 노인이 그가 속할 수 있는 사회적 조직체에서 사회적 및 심리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 각자는 각기 인격을 지닌 독자적 존재로서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노인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 존립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간의 공통적 욕구인 생리

적 욕구와 심리·사회적 욕구가 함께 충족되어야만 한다.⁴⁾

이와 같이 노인이 가족과 사회에게 공헌한 바에 대한 반대급부적 보상으로 사회가 노인에게 적절한 복지적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⁵⁾는 것에 대해 소득 보장, 의료보장, 주택보장, 사회적 서비스 프로그램 등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은 거시적이고 일률적인 프로그램으로 노인 개개인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사회적 기능상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족으로부터 소외되거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여 정상적인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재가노인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⁶⁾

특히 이런 재가노인들 중에는 장애나 노환으로 인해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어 거의 모든 나날을 누워서 지내야 하는 노인들이 이외로 많다. 이러한 노인들이 생활속에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바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는 일이며 그 중 가장 간절한 염원이 마음대로 목욕을 하는 일일 것이다.

이렇듯 오랜 기간을 자리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중풍을 앓고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서 보호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그들을 목욕시키는 일이다. 이런 측면에서 1997년 9월부터 서울특별시에서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이동목욕서비스 프로그램인데 이는 중증 와병노인이나 치매노인에게 사회적, 심리적 안위를 주고 있는 데에 이동목욕서비스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4) 장인협·최성재(1999),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p. 268.

5) Kutza, E.A. The benefits of Old Ag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1.

6) 이근홍(1999), “재가노인의 케이스 매니지먼트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99 여름호, 한국노인복지학회

제 2 절 이동목욕차 목욕서비스의 목적

이동목욕서비스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이 노령 또는 중증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동안 가정 또는 일반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요보호 대상자에게 목욕 시스템이 완비된 이동목욕 차량이 직접 클라이언트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 청결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의 조성과 아울러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가하고 요보호자 심신의 기능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목욕은 몸을 청결하게 하고 심신의 피로는 풀어 주는 등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운 생활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병상에 누워 장기간 동안 자리보전하고 있는 환자나 팔다리가 부자연스러운 노인,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손쉽게 목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목욕을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고온의 전신목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자극이 너무 강하여 때로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의 뜻밖의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들은 일반 건강인과 달리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며 여러 가지 합병증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간의 동작으로도 뜻하지 않은 신체적 반응, 즉 혈압의 상승, 혈압의 급하강, 호흡곤란, 골절 등의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목욕이 신체에 미치는 생리적인 작용과 올바른 목욕방법,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목욕개호봉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건강한 사람은 혼자 목욕을 할 수 있지만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은 욕실까지의 이동도 어렵고 욕조에 들어가는 일도 도와주지 않으면 힘이 들뿐만 아니라 특히 와병중이 노인

의 경우는 특수 목욕장비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효과적인 목욕서비스 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특수 이동목욕차를 개발하여 활용하게 된 것이다.

이동목욕서비스의 사업은 대체로 첫째, 치매 및 중풍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와병 상태에 있어 위생상태가 불결한 환자를 대상으로 목욕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건강·보건상태를 점검함으로써 이를 환자의 위생상태를 개선하고 건강 수준을 높이는데 있으며 둘째, 목욕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노인성 치매, 중풍환자 가족이 느끼는 부담감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목욕간호를 전문사회복지기관에서 담당함으로써 가족의 부양 부담감을 해소하여 가정내에서는 이들 환자는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있으며 셋째, 사회복지기관에서 이동목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당국이나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데에 있다.⁷⁾

일반적으로 목욕은 몸에 물을 끼얹어 씻거나 욕조에 받아 둔 끓인 물에 몸을 담그는 행위를 입욕(욕탕에 들어감) 또는 목욕(머리를 감으며 몸을 씻는 일)이라고 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목욕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입욕과 목욕은 구별해서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

물은 인체에 필수적인 구성요건이다. 이 물을 이용한 물리치료는 그 역사가 깊은데 물이 가지는 치료 의학적 측면은 자극⁸⁾과 진정의 양면 작용을 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체액을 정화시켜 주는 효과가 있으며 해독과 중화작용에도 도움이 된다.

7) 임춘식, “이동목욕차량 개발 모형”, 미간행물, 1997. p. 12.

8) 자극작용이란 목욕시에 체표 및 체표의 일정 혈위에 가해지는 목욕, 즉 물의 온열자극 冷자극, 화학적 자극, 기계적 자극 등을 가리킨다.

이런 물을 가지고 하는 치료의 종류 중에 목욕이 있다.

목욕을 이용한 치료는 오랜 기간 동안 목욕(탕목욕)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반인들이 느낄 수 없는 다양한 효과들이 있는데 우선 일반적인 목욕의 효과로 전반적인 신체기능의 향상이 있다. 물의 부력, 온혈작용, 말초혈관의 확장 등으로 근육의 긴장과 마비·강직이 완화되어 재활운동이 훨씬 부드럽고 원만해 지게 된다. 둘째, 피부청결 및 신체의 냄새가 제거되고 셋째, 목욕시 맨손으로 수혜자의 신체를 어루만져 주듯이 씻어주는 피부마찰은 수혜자의 뇌를 자극하게 되어 치매 증상을 완화시킨다. 넷째, 목욕시 뇌의 자극은 신경계 및 감각기능장애를 완화시켜 대소변을 원활하게 하는 등 배변, 배뇨작용에 도움을 준다. 다섯째, 활발한 위액분비 작용이 계속되어 식욕증진으로 이어지고 위장의 유동항진은 장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여 식욕을 증진시킨다. 여섯째, 전반적인 신경의 이완으로 장기간 와병상태인 수혜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경감되어 긴장을 풀어주어 편히 잘 수 있도록 해 준다⁹⁾.

또한 이동목욕서비스는 일반적인 수치료 효과 이외에 이동목욕 서비스를 실시로 요보호 대상자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줄 수 있는데 와병노인이나 치매노인은 독거상태에 있거나 보호자가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독거상태에 있으므로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지내게 되는데 이동목욕서비스를 통해 말벗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오랜 기간 동안 와병상태에 있는 대상자들에게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9) 성내종합사회복지관, 이동목욕 자료집, 미간행물, 1997. p. 10.

대부분으로 이들에게 목욕서비스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맨손으로 수혜자의 신체를 어루만지는 과정에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게 된다.

셋째, 이동목욕이 정기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수혜자와 봉사자 그리고 가족 모두에게 정신적인 유대감이 더욱 강화된다. 또한 수혜자나 수혜자 가정의 문제에 대해 파악하기가 용이하며 문제에 대한 상담을 해 줄 수 있다.

넷째,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수혜자에게 다른 서비스나 타기관에 의뢰해 줄 수 있다.

다섯째, 후원자(후원물품)들과 연결을 시켜주어 수혜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줄 있다.

여섯째, 수혜자의 가정에 가중되는 경제적·정신적 부담감을 경감시켜 주며 보호자에게 필요한 간호교육을 실시한다.

일곱째, 지역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므로 지역사회와의 보다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¹⁰⁾

이와 같이 목욕이 갖고 있는 이런 효과를 볼 때 얼마나 노인에게 효과적인가를 알 수 있지만 와병중인 노약자와 치매노인은 목욕을 할 수 없는 사회적, 심리적 여건으로 인해 물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다. 이런 목욕을 필요로 하는 중증 와병 노인 및 치매노인을 위한 재가복지 서비스의 한 부분으로 이동목욕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에 있다.

10) 임춘식, 상계자료, p. 13.

제 3 절 이동목욕차 목욕서비스 사업의 실태

노인은 일반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기능이 감퇴되어 정상적인 생활기능과 직업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시기에 있으며 특히 이 시기의 노인은 시력의 약화, 청각의 장애, 언어의 장애, 상·하지의 부자유 등 신체적 장애를 수반하여 가정적·사회적 활동을 제한 시켜 심리적 소외마저 야기 시키는데 이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이 이동목욕차 목욕서비스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동목욕차 목욕서비스 수혜대상자 58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 조사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¹¹⁾ 오랫동안 자리에 누워있는 고령의 노인이나 장애인을 간호하는 가정에서 가장 힘든 일은 목욕을 시키는 일이며 대상자 중 목욕을 한번 못해 본 환자가 전체의 59%에 이르러 이동목욕 실현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동목욕대상자 가운데 50% 이상이 질병과 장애로 인해 5년 이상 침상에 누워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호할 가족조차 없는 환자도 3명에 1명 꼴로 집계되었다.

특히 응답자 중 52%가 뇌졸중(중풍)으로 인해 자리에 누워 있으며 다음이 노환 11%, 근디스트로피 9%, 상·하지마비 8%, 시각장애 4%, 뇌성마비 4%, 류마티스 3% 순으로 나타나 주위의 도움없이 환자의 목욕이 불가능한 환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목욕대상자 가정에서 간호하는데 있어서 가장 힘든 일로 응답자 중 52%가

11) 임춘식, 전계자료, p. 15.

목욕보조로 들었으며 외출시중 22%, 배설물 20%, 식사보조 3%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목욕을 시켜주고 있는 가정은 전체의 52%인 반면 목욕을 하지 못하는 대상자가 47%에 이르렀고 목욕을 받는 대상자 중 목욕하는 횟수는 1주일에 1회 31%, 2주에 1회 20%, 1개월에 1회가 19% 순으로 일반인에 비해 목욕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2개월에 1회 12%, 몇 년 동안 한번도 없었다는 응답자가 3%나 있어 목욕에 대한 각계 각층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목욕대상자가 침상에 누워 있었던 기간은 5년에서 10년 이하가 35%로 가장 많았으며 20년 이상이 26%로 50% 이상이 장기간 자리에 누워있어 욕창 등 합병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울러 목욕대상자의 신체 상황에서는 언어소통 불능 21%, 대소변 처리 불능 32% 등으로 환자 가정에서의 간호에 대한 애로와 고통을 잘 알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이동목욕차 목욕서비스 사업은 1992년에 서울 평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본제 주부형 포다블 이동목욕 세트를 구입하여 요보호 대상자 가정을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 클라이언트에게 실내에서 간이 목욕서비스를 실시한 기록이 있으며¹²⁾ 그 다음으로 1995년 창립정공(주)이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12인승 봉고형 이동목욕 차량의 내부구조설비인 욕조 등을 수입, 국산 차량에 조립한 이동목욕 차량이 있는데 기능은 차량의 보일러에서 온수를 직접 공급받아 클라이언트 거처에서 이동용 욕조기를 이용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있으나¹³⁾ 우리

12) 임춘식, 전제자료, p. 13.

13) 창립정공(주), 이동목욕차 팜프렐에서 재인용, 1996.

나라의 환경상 동절기에는 목욕서비스가 용이하지 않음은 물론 욕조기를 요보호 대상자의 룸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최소한 4명의 인력이 필요하여 효율성이 적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1997년에는 한국형 전천후 이동목욕서비스 전용차량인 ‘신나는 목욕탕’이 개발되었는데¹⁴⁾ 기능은 2.5톤 트럭을 개조한 탑형 이동목욕차로써 클라이언트를 차량 내부로 이동시켜 전자동 욕조기를 사용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움직이는 목욕탕으로 기능면에서 뛰어나 한국형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동형 목욕차량이다.

그래서 1996년 10월부터 서울특별시가 이동목욕차 목욕서비스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평화, 수서, 공릉, 길음 4개 종합사회복지관을 시범 사업기관으로 선정 ‘신나는 목욕탕’ 이동목욕차 구입비와 사업비를 지원해 주게 된 것을 시작으로 2000년 5월 현재 19개 복지관에서 이동목욕차 목욕서비스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가 이동목욕차 목욕서비스 사업을 실시하게 된 개요를 보면 노인성 치매, 중증 장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외병 생활을 하고 있는 요보호 대상자에게 국내 최초로 완비된 전천후·전자동 목욕 장비가 설치된 이동 목욕차가 직접 클라이언트의 가정을 방문하여 요보호 대상자가 위생·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요보호 대상 가족의 정서적, 신체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무료이동목욕서비스 사업이며, 이

14) 이동목욕차는 1998년 7월 특허청으로부터 의장등록(제223586호) 그리고 특허(제0193112호)를 획득한 국내 최초의 이동목욕 서비스 전용 특수 차량으로 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임춘식 교수가 개발했음.

동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또는 장애인으로서 보호자의 도움이 없이는 목욕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써 특히 뇌졸중(중풍), 치매노인, 장기 질환으로 중병 중인 사람, 정박·척수마비·근디스로피 등 중증 장애인, 장기 질환·와병 중에 있는 환자 등으로 국한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에서 해당 이동목욕서비스 사업수행기관에 2000년도에는 1시설당 연간 사업비 지원금은 총 4천7백84만원인데, 평화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이 중 인건비 3천2백10만8천원, 운영비 1천83만6천원, 사업비 1천2백34만2천원으로 구분하여 집행하고 있다.¹⁵⁾

평화종합사회복지관의 1999년도 이동목욕서비스 사업평가에 의하면 이동목욕서비스 수혜자는 1일 평균 4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¹⁶⁾ 국내 최초로 '신나는 목욕탕' 이동목욕차 사업을 개시한 평화종합사회복지관 경우 역시 1999년에는 1일 평균 6명으로 집계되고 있어 이동목욕서비스 대상자의 욕구에 비해 목욕서비스의 특수성, 접근성, 전문성을 감안하더라도 운영비 지원 대비 1인 1회 목욕비 단가가 무려 3만3천원으로 산출되어 고가의 목욕서비스 복지상품으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쟁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그러나 평화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노원구 중계3동, 중계본동, 하계1동에 거주하고 있는 1백21명을 이동목욕 수혜 대상으로 선정 건강상태, 생활정도, 접근성

15) 서울특별시 이동목욕사업 보조금이며, 이 중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는 평화종합사회복지관의 예산 구분을 예시한 것임.

16)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과 내부자료에서 인용, 2000.

등을 고려하여 1인당 평균 주 1회 정도의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대상자의 욕구충족에는 미흡한 사업으로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확대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 중에 있을 뿐이다.

결국 앞으로 이동목욕차 목욕서비스 사업의 전문성 확보 내지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동목욕서비스 사업 수행기관 확대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수행기관의 예산 증액지원 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방법의 과정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연구에서는 자료수집의 방법으로 표본조사의 양적 방법을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구조화된 조사표를 통해 이루어지는 양적 조사 방법은 주로 응답자의 사고, 태도에 대한 양적인 자료만을 제공하는 데 그치게 되며, 응답자의 인식, 태도 등에 대한 보다 깊은 질적 정보(in-depth qualitative information)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조사표가 신중하게 구성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질문내용이 응답자에 의해 오인되어질 수 있고,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분석과정에서 잘못 해석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양적 조사방법에 보완하여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대두되어 왔기 때문에¹⁷⁾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17) Knodel, "Focus group discussions for social science research : A Practical guide with an emphasis on the topic of ageing", comparative study of the elderly in Asia, No 90-22. Population studies ceil, university of Michigan. 1990. p. 23.

제 2 절 개별심층면접 연구방법

1. 연구절차

개별심층면접 연구방법(individual in-depth interview)이란, 개인을 대상으로 어떠한 연구주제에 대한 자료를 얻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면접지침만으로 매우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속에서 면접자가 피 면접자의 언어적 반응을 얻어내는 질적 연구방법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면접법이라는 말 그대로 개인을 대상으로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전에 조직적으로 짜여진 조사표나 질문서가 없이 실시하는 비 조사표형, 비 표준화, 비조직적, 비유도적 면접을 일컫는다. 조직화되지 않은 심층면접을 통하여 연구자는 피면접자로 부터 개인적 경험에 입각한 생생하고 정확하고 포괄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¹⁸⁾.

그러나 이러한 심층면접방법조차도 면접 자체가 이미 상호작용의 한 유형일 수밖에 없다는 제한점으로 인하여 자료수집과정에서 면접자의 개입·통제 가능성을 전면 부정할 수 없으며, 또한 수집된 자료가 피 면접자의 언어적 반응이지 행위, 그 자체일 수 없다는 제한점이 따르게 된다.

비 구조적 면접이라고 해서 구조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연구자는 면접을 통하여 연구주제에 적합한 피 면접자의 경험과 태도 등을 알아내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와 관련된 면접의 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질문내용을 구조화된 조직적 질문으로 못박아 놓지 말고 융통성 있게 진행시키며, 면접자는

18) 김경동·어온죽, 『사회조사방법론』, 서울 : 형설출판사, 1998, p. 539.

피면접자에게 경청하면서 다음의 질문을 떠올릴 수 있는 역동적인 과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훈련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개별심층면접방법의 실시절차를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 (1) 연구주제의 선정
- (2) 심층면접의 양식결정 (질문의 구조화 수준 결정)
- (3) 면접대상의 선정
- (4) 면접지침서 개발
- (5) 시험조사
- (6) 면접실시
- (7) 면접내용 녹음결과의 기록작업(process recording)
- (8) 녹음기록 및 관찰기록의 분석 및 해석
- (9) 연구 보고서 작성

2. 대상자 선정 및 면접회수

본 연구에서 개별 심층면접 방법의 대상자는 서울 평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동목욕서비스 사업의 수혜대상 노인들 중에서 비교적 대화가 가능한 수혜노인 남자 7명, 여자 8명 총 15명을 사례로 선정하였다. 각 개별 사례별로 3회 이상의 가정방문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1회 면접시간은 2시간 정도였다.

3. 연구주제 및 면접지침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1일 생활주기 및 일생사를 통하여 노인이 가정 내에서 와 병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노인의 현재 위생 건강을 위한 신체적 청결 문제는 어떠하며, 또한 이동목욕 서비스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등의 보건위생과 관련되는 주제에 관심을 두고 수행되었다. 그 구체적인 면접지침은 다음과 같다.

주 제 1 : 노년기에 대한 인식

- (1) 스스로 자신을 노인이라고 생각하는가?
- (2) 언제부터 노인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또는 언제부터 노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는가?

주 제 2 : 건강 태도에 대한 의견

- (1) 노후의 와병생활은 어떠한가?
- (2) 현재의 건강상태는 어떠한가?
- (3) 자녀들의 와병 노부모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

주 제 3 : 이동목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 (1) 이동목욕 서비스를 어떻게 해서 받게 되었나?
- (2) 목욕서비스 후의 감정은 어떠한가?
- (3) 이동목욕시 봉사자의 태도는 어떠한가?
- (4) 이동목욕 서비스 사업에 바라는 무엇인가?

주 제 4 : 인생회상 및 평가

- (1) 최고의 시기
- (2) 가장 후회스러운 일
- (3) 주위사람들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생각
- (4) 사회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생각
- (5) 인생을 다시 산다면, 어떻게 살고 싶은가?
- (6) 현재의 희망사항

4. 개별심층면접 실시과정

1) 사례노인 선정 및 면접 기간

본 연구에서의 사례노인은 만 65세 이상 생활보호 대상 노인으로 규정하고 남자 노인 7명, 여자노인 8명 총 15명을 조사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자료수집은 1999년 1월 15일부터 1999년 3월 31까지 45일간에 걸쳐 이루어 졌다.

2) 면접장소 및 사전준비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례연구 대상노인 가정을 연구자가 직접 방문 수행하였다. 그리고 면접은 3회로 종결되었으며 1회에 약 2시간 소요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양해하에 녹음기를 사용하였으며, 녹음된 내용과 기록한 질문지의 내용 가운데 이동목욕과 관련된 부분만을 발췌하여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3) 면접시 관찰의 중요성

면접이 실시되는 동안 피 면접자의 신체적 긴장, 얼굴의 반응, 흥분 혹은 낙담하는 태도를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물론 연구자의 시각으로 피 면접자의 행동전반을 관찰하게 되므로 연구자의 훈련, 편견, 태도 등에 따라 관찰의 범위나 해석의 방법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겠으나 훈련된 연구자는 관찰의 주관성을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5. 분석 및 해석

개별심층면접의 결과분석에서는 연구목적에 맞는 독자적인 분석들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면접자의 통찰력과 이론적인 근거에 의존해 적절한 해석을 내리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 질적 연구의 녹음기록방법, 관찰기록 등 일반적 자료처리에서는 질적 연구에 있어서 타당성 문제는 수집된 자료의 대표성 내지 일반화의 가능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¹⁹⁾ 이는 질적 연구가 대개 소수의 사례를 다루는 데 기인한다. 그러나 통계적 대표성만이 대표성으로 인정받는 데에는 잘못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다만, 연구대상의

19) 심층면접결과의 분석에 있어서 질적으로 수준이 높은 자료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McCracken, 1988, 48~52) : 첫째, 가능한 한 자세히 기술하여 모호성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exactness). 둘째, 가정을 최대한 줄이고 구조적으로 짜임새 있는 서술을 한다(economy). 셋째, 연구자가 피력하는 주장 사이에 모순이 없도록 한다(mutual consistency). 넷째, 주제가 독립적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external consistency). 다섯째, 자료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unity). 여섯째, 정확성을 잃지 않으면서 동시에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명시해야 한다(power). 일곱째, 새로운 사고와 통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사례가 그 범주(sub-group)의 현상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전형적’일 수 있다는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족하다. 그리고 질적 연구는 상당히 주관성이 강하며, 또한 상호 교차 검토할 상대가 없다는 점에서 신뢰도의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모든 상황의 자세한 기록을 통해, 제3자가 연구자의 연구자세를 평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연구방법 및 과정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²⁰⁾.

20) 김경동·어온죽, 전제서, p. 558.

제 4 장 결과 및 해석

제 1 절 일반적 특성

1. 사례 선정

본 연구에서 개별심층면접을 실시한 목적은 첫째, 노인의 생활사와 일상생활을 심도 있게 파악함으로써 노인의 의식상태와 노인의 보건건강과 관련된 보다 깊이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둘째, 이렇게 제시된 개별화된 정보는 노인 개개인의 특수한 문제나 욕구에 대한 욕구를 발견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에 대한 구체적인 면접지침을 사용하였다.

개별 심층면접의 사례선정은 앞서 언급된 평화종합사회복지관 이동목욕 서비스 수혜대상자 총 121명중에 의사소통이 가능한 노인 15명을 개별심층면접의 자료로 선정하였다²¹⁾.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별심층면접의 분석대상으로 삼은 이들 노인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노인들은 비교적 호의적으로 면접에 응했으며, 별 어려움 없이 면접을 실시할 수 있었다. 이는 연구자가 이동목욕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있어 사례노인들과 이미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한 친밀한 관계(rapport)를 형성하였기 때문인 것

21) 개별 심층면접은 면접자와 피면접자가 장기간 여러 차례의 면접 기회를 가지는 것이 이상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별로 3회 이상의 면접(1회 소요시간 2시간 정도)만을 하였지만, 사실은 수 차례 이동목욕 서비스를 수혜받은 노인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심층면접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동목욕 서비스는 평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전문 이동목욕 차량을 개발하여 실시하는 특수 이동목욕 프로그램이다.

으로 생각된다. 개별심층면접 방법의 경우 면접자와 피면접자와의 관계에 있어 친밀한 관계형성이 면접에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의 다양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례선정 방법은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2. 노인세대의 시대적 특수성

본 연구의 사례노인들은 1920년대~1935년대 출생하여, 일제치하, 6. 25전쟁, 전후 혼란기 등의 어려운 시대적 상황하에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시련을 경험하며 살아 온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사례 노인들의 회고담에는 빈곤과 관련된 고생담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여자 노인들의 경우에는 대가족 내에서 호된 시집살이를 견디어야 했고, 남편에게 순종하며 매사에 인내를 강요당하는 삶을 살아 왔음은 물론 자녀양육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희생해 온 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그런 경우에 따라서 배우자 사망, 이혼, 무자식, 빈곤 등으로 인하여 생활보호 대상으로 선정되어 독거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3. 사례노인별 인구학적 특성 및 생활사

1) 인구학적 특성

사례노인들은 5명은 홀로 살고 있으며 6명은 자녀들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었으

나, 자녀와 별거중인 노인도 4명이었다. 그리고 가정 내에는 목욕시설이 전무하여 이동목욕 서비스를 월 평균 2회 정도로 받고 있었다.

사례노인의 일반적 특성은 <표 4-1>, 그리고 생활관련 사항은 <표 4-2>와 같다.

<표 4-1> 사례 노인 일반적 특성

사 례 명	성별	연령	교육수준	사회 보장	자녀수	종 교	과 거 직 업	생활비마련
01. 최○○	남	92	무 학	거택	없 음	천주교	일용직	공적부조
02. 이○○	남	67	중 졸	자활	1남1녀	기독교	건축업	공적부조
03. 이○○	남	86	무 학	자활	2남2녀	없 음	없 음	공적부조
04. 김○○	남	82	무 학	거택	2녀	기독교	광 부	공적부조
05. 김○○	남	61	무 학	거택	없 음	없 음	제과업	공적부조
06. 나○○	남	77	대 졸	자활	1남2녀	없 음	군 인	공적부조
07. 손○○	남	67	무 학	거택	2남1녀	없 음	건축업	공적부조
08. 이○○	여	76	무 학	자활	2남1녀	기독교	가 사	공적부조
09. 조○○	여	65	국 졸	자활	1남1녀	불 교	가 사	공적부조
10. 김○○	여	75	무 학	자활	8녀	기독교	가 사	공적부조
11. 윤○○	여	81	무 학	거택	6녀	없 음	가 사	공적부조
12. 권○○	여	86	무 학	거택	1녀	기독교	가 사	공적부조
13. 백○○	여	73	무 학	자활	1남	천주교	가 사	공적부조
14. 이○○	여	77	무 학	자활	3남1녀	없 음	가 사	공적부조
15. 김○○	여	77	무 학	자활	2남1녀	기독교	가 사	공적부조

<표 4-2> 사례 노인의 생활관련 상황

사 례 명	사회 보장	주택 소유	주거 형태	건강상태	와병 기간	목욕 시설	월목욕 횟수	목 욕 방 법	이 동 방 법
01. 최○○	거택	월세	독거	뇌 졸 중	18년	없음	2	이동목욕	카 터
02. 이○○	자활	월세	별거	뇌 졸 중	10년	없음	1	이동목욕	휠체어
03. 이○○	자활	월세	독거	와 상	6년	없음	3	이동목욕	카 터
04. 김○○	거택	월세	별거	뇌 졸 중	2년	없음	2	이동목욕	휠체어
05. 김○○	거택	월세	동거	뇌 졸 중	22년	없음	1	이동목욕	휠체어
06. 나○○	자활	월세	동거	뇌 졸 중	13년	없음	2	이동목욕	휠체어
07. 손○○	거택	월세	동거	뇌 졸 중	8년	없음	2	이동목욕	휠체어
08. 이○○	자활	월세	동거	하지절단	17년	없음	2	이동목욕	휠체어
09. 조○○	자활	월세	동거	와 상	14년	없음	2	이동목욕	카 터
10. 김○○	자활	월세	별거	뇌 졸 중	6년	없음	1	이동목욕	휠체어
11. 윤○○	거택	월세	별거	뇌 졸 중	7년	없음	2	이동목욕	휠체어
12. 권○○	거택	월세	독거	와 상	11년	없음	2	이동목욕	카 터
13. 백○○	자활	월세	독거	뇌 졸 중	6년	없음	2	이동목욕	휠체어
14. 이○○	자활	월세	독거	와 상	1년	없음	1	이동목욕	휠체어
15. 김○○	자활	월세	동거	뇌 졸 중	14년	없음	2	이동목욕	휠체어

2) 사례별 생활사

개인별 사례노인들의 생활사(life history)는 개개인의 개별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매우 유익한 자료이기 때문에 15명의 사례노인 생활사를 다음과 같이 간단히 요약하기로 한다.

(1) 사례 1(남 · 92)

클라이언트는 강원도에서 1908년에 태어났으며, 배우자와 늦게 결혼하여 슬하에 아들을 한 명 두었으나 홍역으로 아들을 잃고 슬하에 자식을 두지 못하였다.

클라이언트는 젊은 시절 막노동판에서 노동 일을 하면서 근근히 생활하였으며, 어렵게 살았으며 클라이언트의 부인은 60세에 복막염을 앓는 중에 회충약을 잘못 복용하여 척추이상으로 8개월 동안 병원치료를 받았으나, 그 후 현재까지 거동이 매우 불편한 상태이다.

특히 엉치뼈 부분의 통증이 심하여 집안에서도 기어서 집안 일을 하는 등 일상 생활을 하는데 매우 힘이든 상태이고, 클라이언트도 담석증 수술이후 복부에 축구공 만한 혹이 있어 여러 번 병원을 찾아가 수술을 요구했으나, 연세가 너무 많아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현재는 가정봉사원 주 4회 방문하여 도움을 주고 있으며 매일 누워서 보내는 와상노인이다.

클라이언트는 현재 노환으로 인해 하지마비 상태로 대소변 처리가 전혀 불가능하여 기저귀를 차며 위생 청결이 매우 불결한 상태이나 부인 역시 노환 및 병으로 인해 목욕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목욕서비스가 매우 필요한 대상자였다.

(2) 사례 2(남 · 67세)

클라이언트는 1934년 충남에서 태어났으며 현재부인과는 28년 전에 재혼하여 집 짓는 청부업을 하다가 신경성 스트레스 과로로 쓰러졌으며, 자녀로는 전처에게서 딸을 낳았고 재혼하여 한 명의 아들이 있으나 모두 재가하여 따로 살고 있으며 현재는 소식이 끊긴 상태에 있다.

현재 클라이언트 부인이 취로사업을 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클라이언트는 중풍으로 좌측 편마비에 당뇨까지 앓고 있으며 보건소에서 한 달에 두 번 집으로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있으며 건강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클라이언트의 부인 또한 신경성 약 및 고혈압으로 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이며 10년간 뒷바라지로 인하여 심신이 매우 지쳐있는 상태로 클라이언트를 간단한 생활보조 및 식사보조 외에 수발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더구나 클라이언트는 대소변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타 기관과 연계하여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 지원과 외출 시 차량지원 및 외출동행서비스 지원 및 목욕서비스가 매우 필요한 대상자였다.

(3) 사례 3(남 · 86)

클라이언트는 1914년 이북 청진에서 태어났고 해방 후 서울로 와서 생활하게 되었으며 결혼하여 8년만에 2남 2녀를 출산하였다.

92년 겨울에 하계동 영구임대 아파트로 입주하게 되었으며 큰아들이 93년도에 사망하고 그해 5월 중순쯤 부인도 사망하자 클라이언트는 충격을 받아 그때부터

치매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백내장 및 신경통과 하지마비로 인하여 거의 거동이 불편하여 누워지내는 형편이다.

현재 클라이언트는 소녀가장인 손녀딸과 둘이 생활하고 있으며 집안정리 및 위생, 청결에서 매우 미흡한 상태이고, 손녀딸이 학교에 가면 혼자서 생활하므로 자원봉사자를 통한 말벗서비스가 필요하며 자포자기 상태로 대소변처리가 불가능하여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으므로 위생상태가 불결하며 악취가 풍기는 등 이동목욕서비스가 매우 필요한 상태로 목욕서비스가 매우 필요한 대상자였다.

(4) 사례 4(남 · 82세)

클라이언트는 1918년 전남 고흥에서 1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초등학교 3학년때 어머니가 사망한 후 아버지는 재혼을 하고 클라이언트와 여동생은 친척집을 전전하며 성장하였다.

클라이언트의 동생이 남의 집 가정부로 들어가자 클라이언트는 일본으로 건너가 광부 생활을 하였으며 27살에 재일 한국인인 현재 부인을 만나 결혼하였고 해방 후 한국으로 건너가 여러 가지 잡일로 생계를 유지하였고 특별한 직업은 갖지 못하였다.

슬하에 3남 2녀를 두었으나 아들은 모두 사망하였고 딸들은 결혼하였으나 왕래는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클라이언트의 처는 병원에서 퇴원하여 같이 생활하며 서로 의지하며 살고 있다.

클라이언트는 우측 편마비로 거동이 불편하여 휠체어를 타고 다녔으나 지금은

거의 누워지내는 상태여서 악취가 심하게 나는 편이나 부인은 퇴행성관절염을 앓고 있어 신체 청결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하는 실정으로 목욕서비스가 매우 필요한 대상자였다.

(5) 사례 5(남 · 61)

클라이언트는 전북 정읍에서 4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으며 현재는 여동생 혼자만 생존해 있는데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클라이언트는 27세 때 현재의 부인과 결혼하였지만 슬하에 자식을 두지 못하였다.

클라이언트는 제과업에 10년 넘게 일을 했으며, 44세 때부터 특정 직업이 없었고 이때 신경성 스트레스 때문에 중풍으로 쓰러졌고 이에 부인은 파출부 일을 하여 생계를 유지했으며 면목동 단칸방에서 살다가 92년 영구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현재는 생활보호 2종으로 부인은 취로사업을 하고 있고, 클라이언트는 22년간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부인이 뒷바라지를 하고 있으나 클라이언트가 몸이 매우 비대하여 부인이 혼자 힘으로는 신체 청결을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고 부인이 제일 힘들게 목욕시키는 일이라고 한다.

클라이언트는 하지마비 장애인으로 대소변 처리가 불가능하여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어 목욕서비스가 매우 필요한 대상자였다.

(6) 사례 6(남 · 77)

클라이언트는 1925년 서울에서 외아들로 태어났으며 어릴적 부모님의 사랑이 남달랐다고 한다.

서울에서 단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공군소위로 임관 군에서 22년간 군복무를 하였으며, 클라이언트는 공군소령으로 51세때 제대하였고 첫 번째 부인과 동거를 하여 1남 2녀를 두었다. 제대 후 퇴직금으로 사업을 시작했으나 부도로 인한 사업실패 후 갑자기 폐인이 되었으며 현재 배우자와 61세 때 재혼을 하여 현재까지 영구임대 아파트에서 생활한다.

자녀들은 전처의 자식들로 현재 큰아들은 미국에서 사업실패로 도산 위기에 처해 있으며 현재 부인과 단둘이 생활하며 부인은 삼성전자 외판원을 하고 있으나 수입이 거의 없는 형편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태이다.

클라이언트는 비만으로 인해 혈압이 높고 현재는 중풍에 의한 편마비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임 부인 또한 98년도에 허리디스크 수술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으며 예전에는 샤워라도 하여 씻겨 드렸지만 현재는 부인의 건강도 악화되어 도저히 씻길 수가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클라이언트가 대소변처리가 불가능하여 위생이 매우 불결한 상태이며 악취로 인해 목욕서비스가 매우 필요한 대상자였다.

(7) 사례 7(남 · 67세)

1933년 충남 당진에서 6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27세 때 부인과 결혼하고

슬하에 2남 1녀를 두었다. 클라이언트는 젊었을 때 건축업을 시작해서 많은 돈을 벌었고 사업을 확장해서 하다보니 너무 크게 일을 벌려 부도가 났다고 함. 클라이언트의 부인은 클라이언트가 60세 때 사망하였고 부인이 사망하자 그때 뇌졸중으로 쓰러져 8년째 고생하고 있는 중에 있다.

클라이언트는 현재 큰아들 내외와 같이 사는데 아들 내외와 사이가 좋지 않아 따로 살고 싶어하며,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 하는 상태이며 손주들이 클라이언트의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할 때 제일 마음이 아프다고 한다.

클라이언트는 뇌졸중에 의한 우측 편마비로 거동이 약간 가능하나 집에서 약간 움직이는 정도이고 목욕은 불가능한 상태이나 자식내외가 목욕까지는 돌봐주고 있지 않고 경제적으로 열악하여 목욕비도 아까워하는 형편으로 목욕서비스가 매우 필요한 대상자였다.

(8) 사례 8(여 · 76세)

클라이언트는 전남 목포출신으로 25세 때 남편이 사망하고 2남 1녀를 두고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고 한다.

클라이언트가 41세 때 서울 모래내 에서 거주하다가 66세 때 영구임대 아파트로 입주하였고 큰아들은 대전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둘째 아들은 회사부도 이후 자살하였다고 한다.

클라이언트 며느리는 종로에서 노점상으로 난장사를 하고 있음. 예전에는 트럭으로 장사를 하기도 했으나 IMF이후 장가사 잘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어한다.

클라이언트는 59세 때 다리를 다쳐 수술하였으나 결과가 좋지 않아 절단하게 되었고 현재 정신이상인 손녀딸을 돌보며 생활하고 있다.

좌측 하지절단 장애로 인해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목욕서비스가 매우 필요한 대상자였다.

(9) 사례 9(여·61)

클라이언트는 1941년 경북 상주에서 출생하였으며, 결혼 후 서울로 이사를 왔으며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으며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 30여년 전 이혼을 하였고 현재까지 혼자 생활하였음. 시댁에서 자녀 교육비 및 생활비를 얻어 썼으나 클라이언트가 병이든 10여년 전부터 도움이 끊기 상태에 있다.

클라이언트의 큰딸은 어린 나이에 결혼하였으나 이혼하였고 큰딸의 자식(손녀)을 클라이언트가 돌보고 있는 상태이며, 큰딸과 아들은 직장 기숙사 생활을 주로 한다고 한다.

클라이언트는 52세 때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게 되었고 현재 계속 상태가 악화되어 거동이 불편한 상태이고, 집에서 항상 누워 있으며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손녀딸이 대소변 처리를 해주는 상황이다.

어린 손녀딸이 대소변을 처리해주는 상황으로 신체가 매우 불결하고 악취가 풍기는 등 목욕이 매우 필요한 Case로 주 1회 입욕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10) 사례 10(여 · 75세)

클라이언트는 경상남도 영택에서 외동딸로 태어났고 20세에 결혼하여 딸만 8명을 낳았음. 배우자가 전직 경찰이었으므로 집안에서 자녀 양육만 하고 불편함 없이 생활하였으나, 배우자가 퇴직 후 사업에 몇 번 실패하고 현재 영구임대 아파트로 오게 되었으며 클라이언트는 현재 하지마비 지체장애 1급으로 거동을 하지 못하며 30세의 정신지체인 딸이 동거하며 기본적인 가사일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클라이언트는 또한 고혈압으로 지속적인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집안정리를 위한 자원봉사자를 연결시켜 집안 정리를 하며, 몸이 매우 거대하여 목욕을 할 수 없어 신체가 불결하며 악취가 풍기는 등 목욕서비스가 매우 필요한 Case로 주 1회 목욕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11) 사례 11(여 · 81세)

클라이언트는 전라도 집안에서 3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산골로 시집을 갔다 남편과 평생 산골에서 농사만 지었으며, 슬하에 딸 6명이 있다. 남편은 클라이언트가 61세 때 사망하였고 사망 후 막내딸이 19살 때 서울로 상경하였다고 한다.

딸들은 모두 생활이 어려워 클라이언트를 돕지 못하는 형편이며 혼자 생활하고 아무도 없는 자신이 혼자서 돌아가실까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근래에는 이혼 후 충격으로 정신이상인 된 셋째 딸과 생활하고 있으며 보호차원에서 딸을 병원에 치료 및 입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클라이언트는 7년전 뇌졸중으로 좌측 편마비 및 노환이 겹쳐 거동이 불편

하여 혼자서는 목욕이 불가능하며 정신이상인 딸로서는 할머니의 위생, 청결에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어 목욕서비스가 매우 필요한 대상자였다.

(12) 사례 12(여 · 86세)

클라이언트는 경남 진주에서 태어났으며, 17세때 남편을 만나 2남 1녀를 두었으나 아들 둘은 어렸을 때 사망하였고 현재는 결혼한 딸 하나를 두고 있다.

클라이언트의 남편은 농사일을 하다 서울로 올라와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잘 운영되지 않았고 남편이 51세 때 사망하였으며 그후 생계를 위해 해보지 않은 일이 없을 정도로 고생했다고 한다. 그 후 성북구에서 혼자 생활하였다가 영구임대 아파트에 들어 오신지 4년이 되었다고 한다.

클라이언트는 독거노인으로 정부지원금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노환으로 인해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며 일주일에 4번 정도 가정도우미의 방문으로 돌봄을 받고 있다.

클라이언트는 노환으로 인해 현재는 허리디스크로 인하여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며, 대 · 소변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여서 혼자서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입장으로 목욕서비스가 매우 필요한 대상자였다.

(13) 사례 13(여 · 73세)

클라이언트는 1927년 수원에서 1남 2녀 중 셋째 딸로 태어났고, 약 30년 전 현재의 남편과 결혼하여 임신을 하였으나 유산되었고, 그후 자녀를 출산하지 못했다고 함. 남편은 고향이 평양으로 평양에 부인과 자녀 둔 채 6.25때 혼자 남으로 내려온

후 클라이언트와 결혼한 것이라고 한다.

클라이언트는 양아들을 어릴 때 데려다 양육하였고 남편은 중학교 수위로 재직하였기에 집안살림은 넉넉한 편이었다고 한다.

양아들은 현재 40세로 10년 전 결혼한 후 전처와 이혼하고 현재의 처와 재혼하였으며, 재혼 후 사업자금을 대주기 위해 집을 판 후 전셋집에서 살다가 현재의 영구임대로 이사오게 입주하게 되었다고 한다.

남편은 경비 일을 그만두고 노환 및 허리디스크로 인하여 거동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주위의 도움으로 요양원에 입소하였으며 현재는 클라이언트 혼자서 생활하는데, 클라이언트 역시 노환 및 우측편마비로 거의 집에서 누워만 지내는 형편이다.

클라이언트는 이 기간동안 식사 등의 일상생활 문제에 대해 걱정하고 있으며, 클라이언트는 거동이 불편한데다가 몸이 너무 비대하여 청결을 유지하기 힘들고 악취가 풍기며 혼자서는 대소변 처리가 불가능하며, 항상 소변 줄을 끼고 생활하고 있으며, 목욕서비스가 매우 필요한 대상자였다.

(14) 사례 14(여 · 77)

클라이언트는 전라북도 진안에서 출생하여 15세 때 결혼하였고, 슬하에 3남 1녀를 두었다. 중계본동에 온지 30여 년이 넘었고 그 동안 혼자 살아오고 있다. 큰딸과 둘째 아들만이 가끔 찾아오고 나머지 자식들은 연락이 끊어졌다고 한다.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태이며, 이웃이나 가끔 찾아오는 자식이 주는 용돈으로 생활하고 있는 형편이다.

클라이언트는 현재 노환으로 인해 고혈압 및 위장장애와 요통으로 인해 지팡이를 의지해 조금씩 보행하는 실정에 있다.

클라이언트는 독거노인으로 외로움을 많이 느끼며 노환 및 빈혈이 매우 심하며, 경제적으로 목욕비가 너무 아까워하시며, 체력이 너무 약해 혼자서는 목욕하기가 매우 힘이 든 대상자로 이동목욕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였다.

(15) 사례 15(여 · 77세)

클라이언트는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나 19살 때 결혼해서 슬하에 2남 1녀를 두었고, 배우자와 서울에 올라와서 식당을 운영하였으나 실패하였다고 한다.

남편은 59세 때 사망하였으며 클라이언트는 몸이 좋지 않아 집에만 머물렀고, 큰아들이 양복점을 운영해서 생활비를 조달하였으나, 클라이언트가 64세 때 중풍으로 쓰러졌고, 큰아들도 이듬해에 중풍으로 쓰러져 현재는 큰아들 내외하고 손주와 생활하고 있으나 큰아들은 취로사업을 하고 며느리는 파출부 일을 하고 있어 집안 정리 상태는 엉망이며, 식구들이 모두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혼자 집에 있는 게 싫다고 하였다.

또한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태여서 할머니는 기저귀라도 후원해줬으면 함. 클라이언트는 현재 좌측 편마비 장애로 누워서 생활하는 입장이며, 대소변 처리가 불가능하여, 항상 기저귀를 차고 계셔서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목욕서비스가 매우 필요한 대상자였다.

제 2 절 개별심층 면접 사례

1. 노년기에 대한 인식

다음은 ① 노인들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자각하고 있는지 여부, ② 노인이 언제, 그리고 어떤 계기에 의해 노인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 개별 심층면접의 결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라고 자각하고 있는지의 여부

대다수의 사례노인들은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박인덕 외 (1989)²²⁾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보다 노인이라고 자각하는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에 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별 및 연령별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본 연구가 일반노인 대상이 아니라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사례노인의 특수한 상황에 기인한 것을 사료된다.

그리고 노인들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고 싶어하지 않는 이유는 노인이라는 말 자체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무가치하고 무기력한 사람’으로 통용되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 때문이며 더구나 사례노인들은 와병 노인들로 이러한 부정적 시각이 더욱 크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견해는 다음과 같은 인용문에 잘 나타나 있다.

22) 여성노인들이 남성노인에 비해 노인이라고 자각하는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결과는, 본 집단토의방법을 통해서는 물론이고, 다른 사회조사의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여성개발원의 조사에서 노인 자각연령의 평균은 여성노인이 63.1세, 남성노인이 64.4세로 성별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박인덕 외, 여성노인의 복지지원을 위한 기초실태조사, 1989, p. 125).

늙었다고 하지마

늙어도 마음은 청춘이야. 신세가 말이 아니야. 늙었다고 하지마. 자식들이 있는데 한 명은 시집 가서 손녀가 여섯 살이야, 그년이 할머니라고 그래 나 늙었어. 세월이 참 빨라 벌써 손녀보고 젊었을 때는 그때 나도 이랬어. (여·65세)

마음은 청춘이야

나이는 먹고 늙어 빠져도 마음은 청춘이지. 항상 젊게 살려고 그러지. 교회 나간지는 십년이 넘었어. 지금 이렇게 늙고 그래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지. 성경책도 여러번 읽었지. 앉아서 만 생활하니까, 지루할 때도 있지만 어쩔 수 없어. (여·75세)

누가 봐도 노인이라고 하지

사람들이 늙었는데 죽어야지. 우리 영감이 구십이 넘었어, 그러면 노인이지. 그 영감하고 같이 살 면 노인이지 뭐야. 이렇게 살아 뭘 해 누워 있기도 힘들어. 지금 오줌도 줄에 연결해서 뽑아내고 있지. 이렇게 사는데 누가 봐도 노인이라고 하지. (여·73세)

흰머리 봐 허리도 굽고

노인이지 뭐여, 흰머리 봐 허리도 굽고 이렇게 사는 것도 힘들어, 자식복도 없고 내 팔자가 더러워, 자식들 덕 좀 보고 살라고 했는데, 내복에 이런 거지같은 동네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 다른 동네로 이사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 가지. (여·77세)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뭐!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뭐, 다른 거 있어 늙으면 노인 되는 거지. 우리 할망구도 늙고 나도 늙었어. 염병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돼 너무 힘들어 할망구까지 아프니 우리 늙은이들은 누가 돌봐 줘 이렇게 살다 죽는 수밖에 더 있어. (남·82세)

세월이 참 빠르디요

허허 참 늙었지 않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세월이 참 빠르디요. 나이 먹어 재혼해서 할멈 고생시켰지. 지금은 병신 되서 고생이 많지. (남·77세)

노인이라고 생각하기 싫어

나는 노인이라고 생각하기 싫어. 그런 생각 해 본적 없어, 누워있어도 언젠가는 걸겠지 하는 생각 뿐이야. 그런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되더라구. (남·61세)

힘없으면 노인이지

나는 혼자 사는데 힘이 들고, 혼자서 아무 것도 못하지. 도우미 아줌마가 와서 밥도 챙겨주고, 나는 못해 그냥 누워만 있어, 그러니 힘없으면 노인이지 뭐야. (여·86세)

손주들이 할머니라고 부를 때

그럼 늙었지. 머리가 하 해지고 힘없고 살기 힘들어. 빨리 죽어야지 자식 결혼시키고 손주들이 할머니라고 부를 때, 그러지 뭐. 그냥 마지못해 사는 거야. (여·76세)

지금은 꼴이 말이 아니야

이렇게 누워만 있는데 노인이지. 돌아 댕겼으면 안 늙었겠나 젊었을 때는 일도 많고, 재미가 좋았었지. 그 때는 좋았어, 전국 안 가 본 데가 없어. 지금은 꼴이 말이 아니야 아무 것도 못하고 누워만 있지. (남·86세)

늙었으니까

늙었으니까, 힘도 없고 너무 오래 살았어. 동네 아이들이 나보고 할아버지라고 그러는데 내가 노인 아니야. 세월이 참 빨라, 내 나이가 벌써 90이 넘었어. (남·92세)

주위에서 할아버지라고 할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할아버지라고 부를 때, 노인이라고 느끼지. 매년 늙은 게 느껴져 힘이 없어. 작년보다 올해에는 몸이 또 틀려 그걸 느끼지.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고통 없이 죽는 약 있다면 먹고 죽고싶은 게 내 심정이야 이렇게 살아서 뭐해. (남·67세)

다 죽게 생겼는데...

늙었으니까 노인이지. 눈으로 안보여 다 죽게 생겼는데, 봐 죽지 않고 사는 거지 뭐. 누워서 생활하니까, 힘도 없고 너무 힘들어서 빨리 죽고 싶어. 이렇게 사는 게 사람 꼴이야. 다음 날도 눈뜨면 똑같은 다 부질없어. (여·77세)

죽는 게 편해라우

병도 들고 마음은 젊어도 몸뎡이가 늙어서 말을 안듣지라. 허리가 아 파서 제대로 누워 있지도 못하지라.
늙으면 죽는게 편해라우. (여·81세)

늙는다는 것은 순간이야

내가 사는 게 말이 아니야. 손녀딸과 둘이 사는데 어린 게 뭘 할 줄 아는 게 있어. 나도 집 에 누워만 있는데, 힘도 없고 늙는다는 것은 순간이야. 손녀딸이 착해서 나를 끔찍히 생각 해. 나는 늙었지. 암... (여·86세)

2) 노인으로 인식하는 시점

(1) 노인에 대한 인식

노인이라고 인식하는 또는 노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시점에 대하여는 15명이 거의 일치하고 있었다. 즉, 노인 모두가 노년기가 시작되는 계기를 건강상의 이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극히 일부가 ‘나이가 많으면 노인이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보이고 있을 뿐이었다. 노인으로 느끼게 된 주요 계기에 대해서는 성별에 관계없이 ‘기력이 없어질 때’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 외에 신체적 변화 및 생활주기상의 변화로 노인임을 느끼게 된다는 의견은 남자가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어떤 계기에 의하여 노인으로 느끼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보여 주고 있었다. 반면 여자는 주로 연령을 기준으로 보고 있었으나, 기력이 떨어져 일을 못하게 될 때 노인임을 느낀다는 의견도 있었다.

(2) 노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주요 요인

다음에서는 노인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이 어떠한 계기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이

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가 몇 세 정도인지를 살펴 보았는데, 먼저 노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또는 노인이 되었다고 느꼈던 시기에 대해서, 모두 '기력이 쇠약해졌을 때'라는 의견이 지적되었다. 즉,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빠지면서 활동이 힘들어지고 그래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될 때가 노인이 되는 시점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 이외에도 자녀출가와 함께 손자녀를 보게 되어 할머니·할아버지가 되는 경험과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조부모가 되는 경험과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노인들의 경우 연령을 기준으로 노인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는데, 여자노인이 '나이가 들었으니 노인이지'라는 식으로 연령을 기준으로 노인임을 인식하고 있는 정도가 높았다. 즉,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노인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신체상의 변화 또는 생활주기상의 변화로 인해 노인이 된다고 인식하는 노인들에게 이러한 시기가 주로 어떠한 연령에게 일어나게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자노인의 경우는 65세 정도를 노인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다른 견해는 대체로 70세 이상으로 보고 있었다.

손가락 발가락 다 묶어놔어

아프고 나서 빨리 가야지. 힘이 없어 누워서 생활하니까 더 늙어. 관절염이 무서워 손발이 다 굳고 사람 병신 만들드라구. 약 먹어서 속도 다 버리고 그래서 지금은 혼자서 집에서 물리치료를 하지. 천으로 이렇게 손가락 발가락 다 묶어놔어. (여 · 65세)

중풍 걸리고 나서

중풍 걸리고 나서 활동을 할 수 없어서, 집에서 누워만 있어야 하는 심정 빨리 죽어야지. 지금은 너무 많이 아프고, 할멈은 나 병 수발해서 매우 힘들어해. 할멈은 허리 수술도 받았어. 할멈한테 미안해 죽겠어.

(남 · 67세)

남에게 의지 할 때

옛날에는 머리 염색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닐 때는 몰랐는데, 허리 수술로 걸음을 못 걸고, 남에게 의지할 때가 그렇지. 허리 밑으로는 죽었어. 이렇게 살다가 죽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

(여 · 75세)

똥 · 오줌 처리도 못해

중풍 걸려 아무 것도 못해. 똥오줌도 못하는데 노인이지 뭐야, 몇 년 전만 해도 영감하고 같이 일하고 그랬는데, 순식간에 병신 돼서 지금은 힘도 없고, 옆에서 다 챙겨 줘야 다 받아먹는 입장이야. 너무 힘들어 빨리 가야지.

(여 · 73세)

나이 먹어서 너무 힘들어

힘이 없고 너무 힘들어 나이 먹은 노인네들이 다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젠 나는 노인네구나 생각해. 늙어봐 처량해. 다들 생각해주는 자식이 있어, 그렇다고 영감이나 같이 산 다면 몰라도. 나는 남편 복도 없어 지질이 복도 없지.

(여 · 77세)

힘이 너무 없어서

중풍이 걸리고 나서 힘이 없고, 혼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서럽지. 자식들도 무시하는 것 같고, 어쩔 때는 자식들이 큰소리 칠 때는 속이 많이 상해. 빨리 죽었으면 하는 생각도 하는데 뜻 데로 안돼.

(남 · 67세)

난 늙어서 기어다녀

난 늙었어. 힘들어 기어다니는 것도 고맙지. 근데 지금은 거의 누워서 지내는 게 더 편해. 우리는 밥도 두 끼 먹고살아 지금은 쌀도 떨어지고, 반찬도 복지관에서 받아먹고 있는 데, 그게 오죽해 영양실조 걸리지. 누가 쌀이나 좀 많이 줬으면 해. 먹어도 배고프니 그것이 늙었다는 징조야.

(남 · 82세)

늙어서 남는 게 자식 밖에 없어요.

중풍 걸리고 나서 누워만 지내니까, 힘이 없고 재미가 없어. 사는 게 지겨워 몸이 안 좋고, 그러면 자식들이 보고싶지. 너무 멀리 떨어져서 원, 조금이라도 가까이 사는 자식이 가끔 놀러 와서 그나마 제게 힘을 주지요. 그래도 늙어서 남는 게 자식 밖에 없지요. 우리 할멈이 그때는 좋아하지요.

(남 · 77세)

누워서 생활 하니까

병신 되 갖고 아무 것도 못하고 누워서 생활하고 기력이 없으니 노인이지. 다리에 힘이 없어 죽고 싶을 때 도 있어. 근데 마음대로 안돼. 걸지도 못해서 똥오줌도 못 가리는 병신이야…… (여·81세)

세월이 지나면 다 늙어

어찌어찌 하다가 보니 늙었어. 언제 나이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나이 먹었으니 노인이지. 늙었고 세월이 지나면 다 늙지. 몸이 아프니까 서럽고 그러지 뭐. 식구들이나 많으면 덜 외롭고 좋을텐데, 지금은 빨리 죽고 싶은 생각 뿐이야. 그나마 도우미 아줌마가 와서 재미있게 지내는 편이야. (여·86세)

병신이 될 하겠어

다리 절단하고 고생하면서 부터 그랬지. 너무 힘들어서 며느리와 같이 생활하는데, 내가 살림하지. 며느리가 돈벌러 나가면 내가 살림하는데 병신이 될 하겠어. 그리고 오래 살아 될 해 자식들 눈치 보이고 고생시키는 거지. (여·76세)

마음대로 안돼 누워만 있으니까

귀도 먹고 눈도 침침하고 온몸이 안 움직여, 일도 못하고 하니까 노인이지. 죽을 때가 빨리 왔으면 하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돼 누워만 있으니까, 지금은 힘이 없어 살도 빠졌어. 죽을 때 되면 말라죽는데… (남·92세)

입만 살아서 밥만 축내지

중풍을 맞고 활동을 할 수 없어, 병신이 입만 살아서 밥만 축내지. 자식들이 똥오줌 처리 해주지. 나는 병신이야 기저귀 차고 있는데, 아범이 기저귀 값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 몇 번 죽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돼. (여·77세)

지팡이 짚고 나갈 힘도 없어

늙고 병신되서 그러지. 옛날에는 지팡이라도 짚고 나갔는데 지금은 지팡이 짚고 나갈 힘도 없고 그러제. 온몸이 쭈시고 죽겠어라우. 지금은 맨날 방에 쳐박혀 있으니까 답답하고 사람 사는게 말이 아니야. (여·81세)

늙어 죽으면 손녀딸 누가 돌봐 줘

오래됐지. 나이 먹어서 철도 노동일 그만두고, 술로 거의 매일 생활했는데, 그때 몸이 많이 아팠는데, 아들 죽고 나자 더 힘든 생활을 했어. 손녀딸이 지금은 많이 컸어 내가 죽으면 우리 손녀딸 누가 돌봐 줘. (남·86세)

이러한 주제에 관한 응답을 기존의 사회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사회조사결과에서도 노인으로 인식하게 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 ‘기력이 쇠약해지거나 건강장애’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나²³⁾, 그 외의 요인에 있어서는 본 개별심층면접의 결과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사회조사에 있어서 질문지 응답 항목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배타성의 원칙과 모든 가능한 응답을 망라해야 하는 포괄성의 원칙이 지켜지지 못한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사회조사에서 노인이 되는 시점이 언제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는 경우에, 질문의 응답지 선택 항목을 배타성을 가진 한 차원의 응답으로 구성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녀의 출가와 손 자녀 출생이라는 사실은 인생주기에 있어 분리될 수 없는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사회조사에서 응답항목이 가져야 하는 배타성을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데에 일차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배타적 응답범주를 갖추지 못한 질문지를 이용해 조사를 실시하면, 중복 응답의 조건이 없다면 응답자들은 필연적으로 한가지 문항을 선택 할 수밖에 없게 된다. 혹시 중복응답을 하게 되더라도 우선 순위의 문제 등으로 인해 응답자의 정확한 ‘의견’과 다른 정보를 수집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게 된다.

23) 여성개발원의 연구에서 폐경, 노쇠현상(36.3%), 회갑을 치루고(30.0%), 경로증을 받게 되면서(9.8%), 은퇴(8.0%), 할머니, 할아버지 호칭을 들었을 때(6.0%), 친지사망(5.8%), 손자녀 출생(2.4%), 자녀출가(0.7%), 등으로 나타났다(박인덕 외, 전제서, pp. 126-127). 그리고 신체기능의 약화·건강장애(60.7%), 정신적·심리적 변화(20.7%), 손자녀 출생(11.0%), 자력생활유지 곤란(3.7%), 환갑이 지나서(2.5%), 등으로 나타났다(임종권 외, 한국노인의 생활실태,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 p. 323). 또한 노후생활이라는 것은 건강이 쇠약해진 후의 생활(44.1%), 자녀들이 결혼하거나 독립한 후의 생활(20.4%), 집안일이나 사업을 다른 사람이 해 주는 것(13.8%), 직장을 그만둔 후의 생활(5.7%), 연금이나 양로부양금으로 살아가는 생활(3.0%), 배우자를 사별한 후의 생활(1.5%) 등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노인의 생활과 의식구조, 1990, pp. 90-91).

그리고 사회조사에서 노인이 되는 시점에 대한 문항에서 또 하나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은 대표적 응답항목 중의 하나의 ‘활동을 할 수 없을 때’에의 표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즉, 활동을 못하는 이유가 기력이 쇠약해져서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사회조사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모든 문항의 응답항목을 포괄적·배타적으로 만드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사람들의 태도나 의식을 연구하는 주제에는 질문지를 이용한 사회조사라는 연구방법이 그다지 적합하지 못하며, 개별심층면접이나 집단토의방법과 같은 질적 연구방법이 보다 적절한 연구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 건강 태도에 대한 의견

다음은 ① 노후의 와병 생활은 어떠한가 ② 현재의 건강상태는 어떠한가 ③ 자녀들의 와병 노부모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 개별심층면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노후의 와병 생활에 대한 인식

노년기의 와병 생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식이 분분했지만 우선 자신의 와병 수발을 위해 고생하는 자녀, 배우자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대한 미안함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생활보호 대상자인 사례노인들의 수발자들은 심리적인 부담과 함께 열악한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고 이로 인해 대부분 사례노인들의 노후와 병생활이 주변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수이기는 하나 제대로 수발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의 경우 자식이나 배우자에 대한 원망도 나타났는데 이러한 견해도 나타났다.

노년기의 와병생활에 대해 두드러지는 것은 투병생활과 삶에 지쳐 삶을 포기하고 싶어하고 빨리 고통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죽음을 원하는 사례노인과 비록 와병 중에 있고 삶이 지치고 힘들지만 삶에 대해 애착을 갖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노인도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는 종교적인 영양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견해는 다음의 인용문에 잘 나타나 있다.

돼지새끼 문양, 그렇게 살지

그냥 괜찮지 뭐. 돼지새끼 문양 그냥 그렇게 살지 뭐. 누워서 밥 얻어먹어 이혼한 딸과 같이 사는데, 얼마나 눈치 주는지 같이 살기 싫어, 그냥 빨리 고통 없이 죽는 약 있으면 먹고 죽고 싶어. 글썄 그년이 나보고 죽으래, 그래야 편하대. (여·65세)

때로는 좌절 할 때도 있어

때로는 좌절 할 때도 있고, 이런 사람 살아서 뭐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나마 믿음으로 사니까 지금은 괜찮아. 딸과 같이 사는데 다운 중후군이라. 딸이 불쌍해 나 죽으면 어떻게 해. 그래도 지금은 딸이 장애인 학교에 나가서 공부도 배우고 일상 생활 하는 것도 배우고 오지. 참 기특해. (여·75세)

영감이 그리워

영감하고 같이 살다가 지금은 혼자야. 우리 영감은 요양원에 갔데. 어딘지도 몰라 그냥 그렇게 아줌마가 말했어. 보고 싶기는 그 영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거기 요양원에서는 밥도 잘나 오고 같은 또래 영감 할머니 모여 산다매, 심심하지는 않겠지 (여·73세)

혼자 생활 하니까 힘들어

자식 있으나 마나 나는 자식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내가 직접 벌어야지, 누구하나 도움 주는 놈 한 명 없고, 그래 뭐 지금까지 혼자 벌어서 먹어왔는데 너무 힘들지. 온 몸은 다 아프고 그래. 요즘은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파...

(여·77세)

서러워 죽으라고 내버려 두는 것 같아

생활이 부족하고 항상 그러지 뭐. 적절하고 외롭고 그리고 모든 일에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까. 병신이 일어 날 때도 힘들어서 겨우 일어나고, 맨 날 괴롭고 서러워 죽으라고 내버려두는 것 같아. 선생이 신경 좀 써 줘

(남·82세)

할멈 없을때 괴로워서 많이 울디요

답답해요. 허허 그냥 그럭저럭 지내는 편이지. 힘들어 할멈이 나병수발 하느라구 작년에 허리 수술도 했어. 둘이 먹고살려고 하니 너무 힘들어 기저귀 값도 많이 들어가고 아프면 빨리 죽는 게 낫지. 할멈 없을 때 괴로워서 많이 울디요.

(남·77세)

할멈한테 늘 미안한 생각뿐이지

아이 내 팔자가 이러려하니, 언제는 낫겠지. 근데 풍을 세 번 맞았어. 너무 힘이 없어 할멈한테 늘 미안한 생각뿐이지. 나가서 돈 벌고 집에 와서는 병신 수발하고 불쌍해.

(남·61세)

바깥 구경하고 싶어

그저 그럭저럭 살지. 도우미가 와서 병원 가서 약도 타오고, 심부름도 해주고 그러지 뭐. 누워 있으면 어 지럽고 힘도 없고 밥맛도 없고 그래. 날씨가 좀 풀리면 바깥바람 도 좀 쐬고 싶어. 너무 방안에만 있었더니 바깥 구경도 하고 싶어.

(여·86세)

계속 이렇게 살다가 죽을꺼야

아이구 너무 힘들어 숨가쁘고, 다리병신이 뭐하겠어. 계속 이렇게 살다가 죽을꺼야. 모든게 귀찮아 밖에 나가서 세상 바람도 쐬고 싶은데, 혼자서는 힘들어 그렇다고 정신나간 손녀딸 데리고 나다닐 수도 없고, 그러지 뭐.

(여·76세)

하루 종일 누워서 생활하는데 지겨워

너무 힘이 들어 나는 돼지새끼 몬양, 할머니 밥 챙겨주면 먹고, 똥오줌도 못 가리는 병신이야 .하루종일 누워서 생활하는데 지루하고 답답하지 뭐. 그렇지 이렇게 살아 뭘 해… (남·67세)

적적하고 답답하지 뭐

편안 것 같애. 밥 주고 살게 해주니까 걱정이 없잖아,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런데 적적하고 답답해. 도우미 아줌마가 와도 시간이 없대. 청소만 하고 가버려 그렇다고 할망구한테 밖에 나가자 고도 못하겠어. 할망구는 기어다니지 많이 아프대. (남·92세)

병신되어 합칠려니까 엉망이지 뭐

엉망이지 할망구가 나쁜 여자야, 중풍으로 쓰러져 눈만 깜빡거리고 있는데, 이혼하자고 그랬어. 늙어서 별 주책이지 그래서 이혼도 했는데, 너무 힘들어 아들하고 별거 생활하다가 병신 되어 합칠려니까 뭐 엉망이야. 사람 사는 꼴이 이게 아닌데 말이야. (남·67세)

괴로워서 마음이 아파

우리 큰아들도 중풍인데 그나마 다행인 게 심하게 안 맞았어. 큰아들이 불쌍해 나같은 병신 수발 할려고, 힘들어하는 걸 보면 마음이 아파. 괴로우니까 얼른 죽어야지. 자식들은 몸이 건강해야 좋아하지… (여·77세)

병신 되어 사는 게 오죽해

너무 힘들어 몸뎡이가 맨 날 아프고 발목뎡이도 말도 안 듣고, 힘들어 죽겠어. 정신나간 딸자식 이 병수 발 하는데, 그게 오죽이나 하겠소. 다른 자식들은 다 먹고 살기 바쁘대. 그래도 한번씩은 찾아오면 좋겠어. 아이구 빨리 죽어야지. (여·81세)

생활하기가 여간 곤란한게 아니야

생활하는 게 뭐 어렵지요 내가 이렇게 아파서 누워있으니깐 그리고 생활하기가 여간 곤란해. 임대료 같은 세금 물고 생활하기가 워낙 박박하지. 누가 돈벌어 줄 사람도 없고 사는게 다 그렇지… (남·86세)

2) 현재의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사례노인들은 현재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대부분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화에 따른 건강의 이상과 함께 와병 노인들의 병세 악화가 주 요인으로 사료된다.

또한 사례노인들은 현재의 건강의 회복이나 개선에 대한 기대나 희망을 전혀 갖고 있지 않고 있었는데 오랜 와병생활에서 생긴 ‘체념’을 엿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견해는 다음의 사례에 잘 나타나 있다.

손가락 발가락이 다 굳어서

그냥 그래. 그렇게 살지 뭐, 손가락 발가락이 굳어서 그러지. 밥맛도 좋고 아픈 데는 없어. 마지못해 사는 거지. 그래도 아들은 일어나갔다가 잠자리 오면은 내 몸에서 냄새가 나는데 도, 또 꼴에 엄마라고 딱 붙어 자. 그럴 때는 이쁘지. (여·65세)

입만 살아서 떠벌 떠벌 이야기는 잘 하지

다른 데는 이상 없어. 나는 입만 살아서 떠벌 떠벌 이야기는 잘해. 그것도 하느님한테 감사하지. 그리고 요즘은 눈이 침침하고 글씨가 잘 보이질 않아 돋보기를 써도 오래 못써 성경책 좀 보게 눈 좀 좋았으면 좋겠어. (여·75세)

다 아퍼 병신이지 뭐

다 아퍼 병신이 아프지. 요즘은 배가 자주 아파. 나 많이 먹지도 않은데, 아줌마가 그래. 몸이 자주 붓는 데, 그리고 고마운 건 똥오줌도 이웃집 통장 아주머니가 와서 치워주고, 그러지. 그래도 영감 있을 때가 좋았어. (여·73세)

나이 먹어 어디 아픈 지도 모르겠어

아주 나빠, 걸음도 제대로 못 걷지. 말도 제대로 못하지. 눈도 안보이지 병신이야, 얼른 죽어야지. 병원에 가봤자 의사 선상이 그래 나보고 잘먹고 그러면 낫는데. 누가 그걸 몰라, 돈이 있어야지 최고야. 내가 어디 아픈 지도 모르겠어. (여·77세)

혼자 지껄이면 뭘 해 들어주지도 않는데

온몸이 다 아파 소화도 안되고, 별로 혼자 지껄이면 뭘 해. 들어주지도 않는데, 맨 날 그래 할머니 걱정이야. 거의 누워서 생활하는데, 나도 아프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병원에 가도 돈 없다고 친절하지도 않고, 참 세상 인심이 돈 없으면 빨리 죽어야지. 우리들 같은 노인네 살아 뭘 해. (남·82세)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짜증이 나지

풍을 두 번 맞았는데, 그 뒤로 더 심해졌어.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짜증이 나고 젊었을 때 생각이 자주 나고 그래. 많이 울었지 억울하고 분해서..... (남·77세)

나는 소변도 못 보는 병신이야

뭐 입만 살았어. 네 참 다 아프지. 오줌도 못 누겠어, 휠체어 타거나 찬바람세면 배가 부어 너무 아파. 그때는 병원에 가서 약을 먹으면 통증이 가라앉지. 참 병신도 여러 가지지. 오줌도 마음대로 못사니 빨리 죽어야지. (남·61세)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

날이 갈수록 더 아파. 눈이 좀 침침하고 팔이 아프고. 다리가 불편하고, 허리 좀 아프고 그래. 어떻게 더 아파 죽어야지. 아픈 데가 너무 많아서 병원도 가기 싫어. 봐. 약 만해도 몇 가지야. 밥 보다 약을 더 많이 먹어, 빨리 죽는 게 편해. (여·86세)

나는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아

그런데 심장이 안 좋대. 그나저나 밥은 잘먹어 소화가 잘되고, 밥이 맛있어. 살찌니까 움직이지 못하지. 그래서 몸이 붓고 살만 찌니 어떻게 하지. (여·76세)

날씨가 궂으면 온 몸이 다 아파...

온몸이 쭈시고 아프지. 날씨가 궂으면 원다리가 그렇게 아파. 왼팔도 아프고 밥은 잘먹어 그런데 자꾸 몸이 부어, 휠체어 타고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싶은데, 할머니 힘이 없어 잘 밀지를 못하지. (남·67세)

누워있는 것도 걱정이야 너무 힘들어

못 걷고 누워있는 것도 걱정이야. 그것 때문에 답답해. 위장이 나빠서 약도 먹고 심장도 좋지 않아, 빨리 죽어야지 약을 안 먹으면 못 살아 하루에 밥 세끼 먹으면 약도 세 번 먹 어 지켜워... (남·92세)

늙어서도 눈치를 봐야 해

가끔 잘 놀라는 편이고, 심장이 나빠진 것 같아. 근데 왜 가슴이 양쪽이 다 아파 모르겠어. 병원에 갈려고 해도 큰아들에게 돈을 타야하는데, 원 눈치가 보여서 늙어도 주머니에 돈 좀 있어야 힘이 나드라구.

(남·67세)

똥·오줌 받아내니까 자식들한테 미안해

날씨가 안 좋으면 통증이 와. 화끈거리고 너무 아파. 밥맛도 없고 내가 살아 뭐해, 하는 생각도 수없이 많이 해. 우리 며느리가 도망안가는 것도 늘 감사하지. 병신하나 누워있으니 까 집안 꼴 이 엉망이지. 내가 똥 오줌 받아내니까 집안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지. 며느리 한 테 미안해 죽겠어.

(여·77세)

맨 날 아프고 걸어다니지도 못해

허리도 아프고, 사방 데가 맨 날 아프고, 걸어다니지도 못해. 온몸이 다 아파라우. 세상바람 세고 싶은디, 바람을 쐬 수가 있어야지. 타고 다니는 의자나 하나 주면 좋겠소. 그라고 요즘은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여·81세)

혼자서 보내는 게 너무 외로워

건강은 아주 나쁘지 이렇게 누워만 있어. 당뇨도 있고, 똥오줌도 마음대로 못 뉘. 우리 손녀딸 학교가면, 혼자서 보내는데 너무 외롭고 쓸쓸하지. 식구들 많이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

(남·86세)

3) 자녀들의 와병 노부모에 대한 태도

사례노인들 중 자녀가 있는 경우는 13명였으나 자녀가 없는 노인도 2명이었다. 그러나 자녀와의 동거여부를 보면 9명의 노인이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있었고, 불과 4명만이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들이 와병 노부모에 대한 태도에 대한 인식에서 대부분의 노인이 자신을 부담스러워하고 돌보지 않거나 심지어 방임 또는 유기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사례노인들의 자녀들은 노부모와 장기적인 와병으로 인해 심리적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러한 견해는 다음의 사례에 잘 나타나 있다.

나도 짜증나면 그년하고 말도 안 하지

에이 말할 것도 없어. 아이고 말하지마. 가는 게 편하잖아. 그렇게 말해 물어 볼 것도 없어 말도 말어. 안 죽나 그래 자식새끼들 키워봤자 자기들 생각만 하지. 하나뿐인 어미 생각도 안하드라구. 딸년은 더해 같이 사니까, 직장 갔다와서 짜증 내는 게 일이야. 나도 화나면 그년하고 말도 안 해. (여·65세)

우리 병신 딸이라도 있어서

다들 생활하기 바쁘고 해서 전화나 하고, 옛날에는 많이 도와 줬는데, 지금은 다 먹고살기 힘든가봐. 그런 것도 없어. 그래도 병신 딸이 라도 있어서 심심하지 않아. 학교 갔다와서 밥1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러지. 우리 딸 학교 보내길 잘 했어. 너무 어른 됐어. 하나님한테 감사하지. (여·75세)

먹고살기 바쁘다고 연락도 안 해

다 소용없어. 자식이라곤 양아들 하나 있는데, 먹고살기 바쁜지 잘 찾아오지도 안 해. 다 먹고살기 바쁘대. 전화도 가끔 하긴 하는데 연락이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라 그런가 하는 생각도 하지. 손주 녀석이 보고 싶어. 옛날에는 자주 놀러왔었는데, 손주 녀석도 컸다고 잘 오질 않아... (여·73세)

그래도 자식이라고 불쌍해

필요 없어, 신경 안 써. 다 소용없어. 지금까지 내가 벌어들였는데, 돈이나 안 뵈어 가면 다행이지. 다른 집 자식들은 부모한테 잘한다는데, 우리 새끼들은 어떻게든 돈 빼갈려고 그러니 내가 얼마나 힘든데, 그래도 자식이라고 불쌍해. (여·77세)

자식들 다 필요 없어 께섬한 놈들

자식들 다 필요 없어. 전화 한 통 안 해. 께섬한 놈들 연락도 안 되는데, 돈도 없는데 병원도 가야돼. 우리 집은 병원 비도 2인분이야. 할망구까지 아프니 아무리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해도, 돈 들어가는 약도 있어. 귀찮으니까 이렇게 혼자 내버려둬. 우리 할멈 목욕이나 한번 해줘... (남·82세)

자식들이 걱정 많이 해 줘

지금 외국에 나갔는데, 소식은 가끔 전화로 하디요. 힘들어하디요. 큰아들이 사업이 잘 안되디요. 전화해서 힘들다고 그러면 미움이 너무 아파요. 그래도 시집간 딸이 자주 들려서 자기들 사 는 얘기 손주들 얘기 해주면 더 힘이 나디요. (남·77세)

자식도 없어서 서러워

씨가 없어서 자식이 없어. 나쁜 놈들 나 젊었을 때, 순경한테 너무 많이 맞았어. 그것 때문에 자식 못 낳았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믿지도 않지. 그때는 겁이 없어서 그렇게 재미있었는데, 내 성질이 불이야. 지금은 못 움직이니가 이렇지...

(남·61세)

사람이 그리울 때가 많아

뭐 그저 그냥 그러저럭 지내지. 딸자식이 걱정은 하지. 그런데 시집가서 남편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구 딸년도 정신 없나봐. 전화나 가끔 해서 안부나 묻고 그러지. 외손녀도 보고 싶고 사람 이 그리워.

(여·86세)

잘 사는 자식들은 잘 찾아오지도 않아

아들이 대전에서 사는데 효자라고 소문났어. 며느리도 너무 잘하고 다 좋아. 그런데 가끔 자식 들 눈치도 보이고, 그렇지 뭐. 근데 이상해 없는 자식들이 더 꼼짝히 생각해. 잘사는 자식들은 잘 찾아오지도 않아. 그게 좀 서운하지.

(여·76세)

내가 먼저 올 필요 없다고 그래

그만하면 잘하는 거지. 잘 찾아와 자식들은 이렇게 되면은 부모를 멀리하는데, 그렇지 않아. 내가 미리 그래. 오기 싫으면 오지 말아라. 올 필요 없다. 라고 내가 말해 줘. 그러면 자식들 이 전화하고 난리가 나지.

(남·67세)

자식이 없어서 쓸쓸해

우리는 자식이 없어. 내가 애를 못 난대. 옛날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죽을 때가 돼서 절실히 느껴. 아들이 없으면 딸자식이라도 있으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어. 나 죽으면 우리 할망구 혼자 어떻게 생활하지. 그게 걱정이야...

(남·92세)

냄새 난 다고 손주들이 싫어해

아주 불편해. 병신 되어서 큰아들 집에 들어가서 사는데, 손주녀석들도 나한테 안 올려고 해. 내 몸에서 냄새가 난대. 나 목욕 좀 많이 시켜 줘. 그런 소리 들으면 죽고싶어. 옛날에 일 할 때와는 틀린 것 같아.

(남·67세)

손이라도 잡고 우는 놈 하나도 없어

이렇게 오래 앓으니깐, 자식들이 등한시해. 그래도 역시 큰아들이야. 아침에 보면 혼자서 내 기저귀 사가지고 오드라구. 우리 아들도 힘들텐데..... 어이구 다른 자식들은 껌해 손이 라도 잡고 우는 놈 하나도 없어. 딸자식도 과부로 매우 힘들어 해. (여·77세)

정신 나간 딸이 수발을 하고 있는데

아이고, 딸년들만 많이 낳는데, 다 어렵게 살고 그래라우. 지금은 정신나간 딸이 수발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멀리 떨어져 있는 년보다 나습디다. 밥상도 차려주고 빨래도 해주니까 다른 년들은 가끔 전화나 하지. (여·81세)

그저 그레 다 먹고살기 바쁜데

그저 그러지 뭐. 다 먹고살기 바쁜데, 가끔 전화 통화는 해. 그래도 보고 싶을 때가 많아. 요즘은 복지관 도움으로 도우미 아줌마가 와서 밥도 차려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레. 너무 고맙지. (남·86세)

3. 이동목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다음은 ① 어떻게 해서 이동목욕 서비스를 받게 되었는가 ② 목욕서비스 후의 감정은 어떠한가 ③ 이동목욕시 봉사자의 태도는 어떠한가 ④ 이동목욕 서비스 사업에 바램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 개별심층면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목욕 서비스를 받게 된 경위

사례노인들이 이동목욕 서비스를 받게 된 경위는 주로 이동목욕 담당 사회복지사의 권유에 의해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례노인들은 와병 중에 있으므로 외출이 어렵고 외부의 정보를 접하는데 용이하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어 당연한 결과라고 여겨진다. 또한 이동목욕 서비스 자체가 생소한 서비스이고 타인들에게 자신

의 벗은 몸을 맡긴다는 일종의 수치심 등으로 쉽게 접근할 수 없겠지만 담당 사회복지사의 친절하고 설명과 권유로 편히 서비스를 받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보아 이동목욕 서비스의 중요한 관건중의 하나는 대상 Client와 담당 사회복지사와의 심리적 유대관계가 서비스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직접 이동목욕 서비스를 받고 싶어 신청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사례노인 혼자서는 도저히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 이동목욕 서비스의 절실한 필요성에 의해서 인데 이러한 의견은 다음의 사례에 잘 나타나 있다.

“복지관” 소개로 하게 됐지

복지관 소개로 하게 됐어. 아가씨가 와서 한번 해보래. 그렇게 하게됐지. 뭐 하니까 좋아. 예전에는 집에서 딸년이 시켜줬는데, 얼마나 유세부리고 짜증을 내는지 말로는 표현을 못해. 이러니 얼마나 다행이야. 오래 살고 불이야.

(여·65세)

도우미 아줌마가 한 번 해 보래

우리 집에 오는 도우미 아줌마가 신청해서 하게됐는데, 그전에는 남편이 씻겨주고 내 병 수발 다 들었지. 그때 영감이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가끔 영감 생각나. 나한테 너무 잘해줬어. 그런데 지금은 목욕차가 와서 씻겨주니까 너무 좋아.

(여·75세)

동네 아줌마가 신청했대

동네아줌마가 신청해서 했어. 너무 좋아 몸이 무거운데, 하고 나면 좋아. 목욕 할 때는 바깥바람 쐬고, 목욕하고 나서 공원 가서 사람구경 하고 오면 잠도 잘 오고 밥맛도 좋아. 목욕차가 기다려져...

(여·73세)

복지관 선생님 도움으로 하게 됐지

여자 선생님의 도움으로 하게 됐어. 너무 좋아 목욕비도 만만치 않고, 집에서 목욕한다는 것도 힘들어. 목욕탕도 없고 뜨거운 물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 그런데 목욕차 에서 목욕하고 나니까 너무 좋아. 목욕차가 매일 왔으면 좋겠어. (여·77세)

“보건소” 소개로 하게 됐지

집에서 누워있는데, 노원구 보건소에서 목욕하재. 그래서 했지 뭐, 하고 나니 기분은 좋대. 우리 같은 늙은이한테 목욕보다는 못 먹고사니까, 먹고사는 게 더 급해. 복지관에서도 처음엔 신경 쓰던데, 지금은 찾아오지도 않아. 잘 건지도 못하니 찾아 갈 수도 없어, 선상이 좀 신경 좀 써 줘. (남·82세)

복지관에서 전화가 와서

복지관에서 전화가 와서, 욕조를 갖춘 차라고 한번 하게 됐지요. 하고 나니까 할멈도 좋아하고 그러지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요. 예전에는 할멈이 다 씻겼는데 내가 몸이 커서 고생을 많이 했지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 동네에는 목욕차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남·77세)

도우미 아줌마 소개로

봉사하는 아줌마가 와서 세상이 좋아져서 목욕을 차에서 한 대. 그래서 나도 하게됐지. 뭐, 목욕하면은 물속에 몸을 담그기 때문에, 배가 따뜻해서 오줌도 잘나와 너무 좋아. 나는 목욕차가 기다려져. 우리 할멈도 너무 좋아해 자기도 힘 안들잖아. (남·61세)

복지관 선생님 소개로

복지관 선생님이 상담을 와서 목욕시키는 차가 있는데, 목욕 한번 해보라고 해서 하게 됐어. 내가 살다살다 이런 일은 처음이야. 너무 고맙지. 나 같은 늙은이도 오래 살고 불일이야... (여·86세)

이웃집 아줌마 소개로

이웃집 아줌마가 와서 한번 해보래. 차에서 하는데 나는 누워만 있으면 된대. 그래서 하게 됐지. 물에 꼭 담그니까 너무 좋아. 참 살기 좋아졌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 (여·76세)

복지관에서 전화 와서 하게됐지

복지관에서 전화 와서 이용하게 됐어. 지금은 하고 나니까 너무 좋아. 할멈한테 목욕차 왔나 안 왔나 집에서 내려다보게 해. 목욕차가 오면은 기분이 좋아. 나 같은 병신은 물에 폭 담그면 기분이 너무 좋거든...

(남·67세)

동네 아줌마 소개로 하게됐지

동네 아줌마가 목욕차가 왔대. 그래서 내가 복지관에 전화해서 신청해서 목욕을 하게됐지. 그전에는 혼자 씻어 봤는데, 혼자서는 너무 힘들어. 집 안 욕실은 너무 좁아서, 원 그래도 목욕차 에서 하면은 물에 폭 담그니까 너무 좋아.

(남·92세)

내가 직접 전화해서 하게됐지

별로 내키지 않았어. 근데 트럭에서 목욕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 한번 해보고 싶어서 내가 복지관으로 전화했지. 독탕에서 혼자 하는 기분이라 너무 편하고 좋아. 목욕하고 나면 손주 얼굴보기도 더 편하지...

(남·67세)

복지관 여 선생님이 전화를 해서

복지관 여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다고 큰아들이 말을 하더라구. 차에서 목욕을 한다고 해 보래 전에는, 며느리가 일하고 와서 씻겨줬는데, 대강 씻겨주면서 나도 힘들고 며느리도 너무 힘들어 했는데, 근데 목욕차에서 하면은 너무 좋아.

(여·77세)

복지관 선상 소개로

복지관 선상이 와서 기분 좋아진다고 하라고 해서 했는디, 목욕을 차에서 시켜줍디다. 참 옛날이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 참 별일이여, 하고 나면 너무 개운하고 좋습디다. 그라고 목욕시키는 선상들이 건강해야재...

(여·81세)

이웃집 동네 아줌마가 소개해 줬어

이웃집 아줌마가 차에서 목욕을 한 대. 나는 원래 씻기가 싫어, 그냥 누워 있는 게 좋아. 일어나면 어지럽고 그러지. 근데 목욕을 할 때나 휠체어 타고 나가 바람쐬고, 사람도 구경하고 그래. 너무 좋아.

(남·86세)

2) 이동목욕 서비스 후의 감정 변화

이동목욕 서비스 후 사례노인들은 모두 긍정적인 감정변화를 갖게 되는데 우선 와병 노인들이어서 목욕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금으로 수 치료의 효과를 나타나는

건강상의 변화(예를 들어 몸이 부드러워진다. 혹은 혈액순환이 잘 된다)에 있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이동목욕 서비스 후 신체가 청결해지면서 심리적으로 자신감을 갖게 되고 목욕 후 휠체어에 의지해 나들이를 나가는 등 사회적으로도 자신감을 보였다. 이것으로 보아 이동목욕 서비스는 Client의 신체 청결과 건강관리 이외에 심리적 안정 및 지지체계를 형성하고 나아가 사회적으로 자신감을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견해는 다음의 사례에 잘 나타나 있다.

목욕하는 게 물리치료지 너무 고마워

목욕탕에 갈 수도 없거니와 목욕탕 가서 목욕하면은 목욕비도 무시 못하지. 아이고 하늘로 날 아가는 기분이지. 잠 잘 오고 몸도 편안해 지고 뭐, 약 먹을 것 뭐 있어. 머리 빋는 게 물리치료고 목욕하는 게 물리치료지. 너무 고맙지. (여·65세)

목욕 좀 더 많이 시켜줬으면 하는데

상쾌하지요. 얼마나 좋아요. 더 많이 시켜 좋으면 하는데, 내 몸이 워낙에 덩치가 커서 힘들거야. 다른 여자에 비해서 내가 좀 크지. 이러니 우리 영감 얼마나 힘들어 겠어. 그래서 항상 미안해 아줌마가 고생을 많이 했어. 너무 미안해 사람 참 좋아. (여·75세)

몸이 너무 가볍고 냄새 나는 게 없어져

좋지 뭐 미안해. 힘든 사람 시키는 게 보통 일이야. 목욕하고 나면 이 이상 더 바라면 안되지. 너무 고마워, 그 아줌마 복 받을 거야. 몸이 너무 가볍고 몸에서 냄새 나는 게 없어져서 너무 좋아. 옷도 새로 갈아입고 그러지... (여·73세)

너무 오래 살아 별일 다 봐

좋아 상쾌하고 개운하고 많이 해줘. 돈도 없어서 너무 힘들어, 일주일에 한번정도만 해도 좋을 텐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되지. 내가 너무 오래 살아 별일 다 봐. 어떻게 그런 차를 만들었을까? 참 좋은 세상이지 뭐야. (여·77세)

우리 같은 병신한테 이런 혜택도 주니

이렇게 목욕을 시켜 주니 너무 좋아 시원하고 기분이 좋았지. 뭐 시키는 사람이 힘들텐데, 나야 가만히 누워 있으면 되고, 참 좋은 세상이야. 우리 같은 병신한테 이런 혜택도 주니 너무 고마워. (남·82세)

기분이 좋디요. 말로 표현 못해요

기분이 좋디요. 말로 표현 못해요. 나 같은 사람들은 뜨거운 물에 담그고만 있어도 몸이 부드러워 지는 걸 느끼디요. 그리고 할멈하고 휠체어 타고 공원 가서 꽃구경하고 사람 구경도 하고 오면, 잠도 잘 오고 몸이 너무 편해요. (남·77세)

좋아 날아갈 것 같아요

좋아 날아갈 것 같아. 풍 맞은 사람들한테는 좋아. 좀 많이 시켜 주고 일주일에 한번정도 꾸준히 하면 훨씬 좋아 지겠드라구. 물론 잠도 잘 오지... (남·61세)

물에 담그고 나면 잠도 잘 오고

목욕해주면 좋지. 시원하고 개운하고 너무 좋아. 아픈 데가 너무 많은데 물에 담그고 나면 잠도 잘 오고 너무 좋아. 목욕 좀 많이 시켜 줘 매일 했으면 하는데, 그것도 안되지. 뜨거운 물에 담그면 너무 좋아... (여·86세)

목욕하고 나면 일주일이 편해

목욕하고 나면 일주일이 편해 너무 기분 좋고 그러지. 몸이 너무 뚱뚱해서 옛날에 목욕차 없을 때는, 한 달에 한번 집에서 목욕을 했는데, 나도 힘들고 며느리도 힘들어했어. 지금은 너무 좋아. 복숭아 뼈가 아팠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 내가 마음이 편하지. 항상 고맙게 생각해. (여·76세)

개운해 상쾌하고 기분이 너무 좋아

개운해 기분이 좋아. 상쾌하고 할멈이 시켜 줄 때는, 너무 힘이 들어서 좁은 방에서 비닐 깔아 놓고 눕혀 놓고, 수건에 물 묻혀서 닦아 내기만 했는데, 할멈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 지금은 목욕 차가 기다려져. (남·67세)

몸이 너무 가벼워서 살 것 같아

몸이 너무 가벼워져 너무 개운하고, 선생도 알다시피 내 배에 축구공 만한 혹이 있는데 어떻게 수술 할 수 있을까? 하긴 나이가 너무 많아 병원에서도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하드라구. 차라리 죽어야지. (남·92세)

워 1석 2조야 너무 좋아

그 아줌마가 씻겨주면 너무 좋아. 꼼꼼해서 구석구석 때를 다 밀어주고 너무 좋아. 목욕하고 나면 기분도 좋고, 밥맛도 좋아 며느리도 힘 안들어 좋고, 워 1석2조야 너무 좋아. 그리고 손톱·발톱도 다 깎아줘.

(여·77세)

개운하고 몸이 가볍고 너무 좋아

개운하고 몸이 가볍고 너무 좋아. 허리 아픈 데가 조금은 좋아지고 너무 좋아. 아줌마가 구석구석 잘해주지. 그 아줌마가 오래했으면 좋겠어.

(여·81세)

목욕하고 나면 손녀딸이 너무 좋아해

기분이 좋아. 나같이 똥·오줌 못 가리는 병신은 냄새가 심하게 나서, 손녀딸이 가까이 오지도 않았는데 목욕하고 나면, 손녀딸이 너무 좋아해 고마워 피부가 가렵고 그랬는데 목욕하면서 좋아 졌어. (남·86세)

3) 이동목욕시 봉사자의 태도

이동목욕서비스시 봉사자들이 사례노인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모든 노인들이 한결같이 친절하고 자상하며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이동목욕에 대한 만족감과 봉사자의 태도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는 자식들보다 친절하고 자상하게 잘 대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례노인들이 주로 혼자 사는 독거노인으로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사람을 그리워하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고 또한 이동목욕서비스시 자원봉사자 관리에 있어 교육 및 활용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런 견해는 다음의 사례에 잘 나타나 있다.

그니가 최고야 그니 생각이 절로 나

그니가 최고야 그니 생각이 절로 나. 그 선생님이 최고야 너무 잘해줬어. 신경도 많이 써주고 그랬지. 누워서 똥오줌 싸기 때문에 냄새가 심하게 나지. 우리 손녀딸이 내 몸에서 냄새 난다고 잘 안 올려고 그래. 그런데 목욕하고 나면 우리 손녀딸이 너무 좋아해. 그니가 너무 고마워. (여·65세)

여선생 같은 사람 있으면 손주하고 결혼 시켰으면

참 이쁘고 자상하고 때밀이도 너무 잘해. 그런 사람 있으면 손주하고 결혼시켰으면 해. 아마 부모나 이웃집 노인네 들 한 테 잘 할거야. 그리고 크림도 얼굴에 발라 줘. 그때나 화장품 구경 하지 너무 알뜰해서 너무 깔끔하게 잘 해줘. 너무 착해. (여·75세)

얼굴에 내색도 안 해 짜증 한 번 안 내고

아줌마가 너무 잘해 줘. 아줌마도 힘들텐데 얼굴에 내색도 안 해. 짜증한번 안내고 너무 잘해 줘. 손톱도 깎아 주고, 속옷도 주고 때도 잘 밀어 줘. 그런데 2주에 한번은 너무 길어 일주일에 한번 정도 했으면 해. (여·73세)

여 선생이 잘 씻겨 주고 잘 해줘

그 여 선생이 잘 씻겨 주고 잘 해줘. 그만하면 잘하지 손톱도 깎아 주고 얼굴에 크림도 발라 주고 속옷도 주고 자식들 보다 나아 어떻게 더혀, 항상 미안해 돈이 없어 고맙다는 표시도 못하고 지컬여... (여·77세)

너무 고맙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깨끗이 누구보다도 잘해주었어. 깨끗이 씻어 줘. 뽀스도 새것 주고 굉장히 친절하게 잘해주었어. 너무 고맙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는데 미안해. 어떻게 해야 할지 맨 날 말로만 고맙다 고 할 수밖에.. (남·82세)

목욕시키는걸 보면 얼마나 힘들까 생각을 하지

너무 친절하게 잘해줘요. 더 이상 어떻게 더 바래 혼자 목욕시키는 걸 보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해. 너무 열심히 신경 써서 해주고 너무 고맙고 늘 감사하디요. 목욕시키는 선생님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남·77세)

예전에는 집에서 씻었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

우리 부인이 너무 좋아해. 예전에는 집에서 씻겨줬는데 부인이 힘들어하드라구. 많이 먹지도 않는데, 살이 찌는 것인지 몸이 붓는 건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목욕차가 와서 너무 좋대 요즘은 할멈 몸이 너무 좋아졌어. (남·61세)

그 선생이 힘도 좋고 싹싹하게 잘해주지

그 아줌마가 싹싹하게 잘해줬어. 힘도 좋아서 몸 구석구석 잘 닦아주고, 항상 걱정 해줬지. 손톱도 깎아 주고 속옷 도 주고, 얼굴에 크림도 발라주고 그런 아줌마 없어. 사람들에게 잘하면 살면서도 복 받는데.....

(여·86세)

자식도 그렇게는 안해 줘

너무 잘해 줬어. 그만큼 하기도 힘들어 자식도 그렇게는 안해 줘. 내몸이 좀 뚱뚱해 근데 목욕할 때 몸 구석구석 친절하게 보살펴 주는데, 너무 미안해. 목욕 끝나면 손톱 발톱도 깎아 주고 로션도 발라 줘, 너무 고맙지.

(여·76세)

참 고맙지 자기도 힘들텐데 너무 잘해 줘

참 고맙지 자기도 힘들텐데 너무 잘해 줘, 착하고 고맙지. 할머니 그래 자식보다 낫대. 둘이 사니까... 너무 잘 해줘서 어쩔 때는 미안해, 그래서 내가 늘 기도해 목욕시키는 선생님들도 안 아프고 건강하게 해 주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해.

(남·67세)

항상 미안한 마음이야

미안해. 너무 좋고 사람이 착해. 혼자하기 힘든데 자상하게 목욕시켜 주고, 너무 편안히 잘해 줘. 목욕 할 때나 휠체어 타고 바람 쐬지. 그래서 항상 기다려져. 그런데 2주 한번은 너무 길잖아. 매일 해줬으면 좋겠어.

(남·92세)

우리 집 자식들 보다 나아

내 마음하고 다 틀린가봐. 자식새끼들 다 필요 없어. 너무 잘해 줘. 큰아들은 일한다고 자기 새끼들하고만 목욕하고와 아주 나빠. 우리 자식보다 나아, 요즘은 아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가봐. 나 목욕 좀 자주 시켜줘.

(남·67세)

공짜로 해 주는 것도 고마운데 너무 친절해

공짜로 해 주는 것도 너무 좋고 너무 친절해서 좋아 다 좋지 뭐. 더 바랄 것도 없어. 더바라면 안되지 너무 잘해 줘. 목욕비도 만만치 않은데, 우리 큰아들이 너무 고마워해. 집에서 할 수도 없는데 너무 좋지. 너무 고맙대.

(여·77세)

그 선생이 시원해서 좋아 너무 잘하고

그 아줌마가 시원시원해서 좋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이런 병신들이 좋지라우. 너무 잘해주고 착해. 이런 불쌍한 노인네한테 잘 하면 복받지라우.

(여·81세)

4) 이동목욕 서비스 사업에 바람

사례노인들이 이동목욕 서비스 사업에 바라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들만 이동목욕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부심과 함께 이동목욕차가 많이 보급되어 목욕을 할 수 없는 많은 와병노인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것이었다.

또한 사례노인들은 현재 건강상태에 따라 1주일에 한번 혹은 2주일에 한번 정도 이동목욕 서비스를 받고 있었는데 더 자주 받길 원하고 있었다. 이것으로 볼 때 앞서 이동목욕 서비스 후 감정변화와 관련하여 대상 노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견해는 다음의 사례에 잘 나타나고 있다.

잘 하지 뭐 이 이상 더 바랄 것도 없어

잘하지 뭐 이 이상 더 바랄 것도 없어. 나나 많이 시켜 줘. 이렇게 아픈 사람들 도와주고 그러면 복 받고 자식들도 다 잘된대. 더 좋은 일 많이 해. 그리고 선생도 아프면 안돼. 나는 제일 걱정이 목욕이야. 누가 신경 쓰는 사람이 없잖아 그나마 목욕차가 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여·65세)

목욕차를 많이 만들어 좋은 일을

나 씻는 거 좋지만, 내가 덩치가 커서 시키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더 목욕차를 많이 만들어 더 많은 좋은 일을 했으면 해. 하나님한테 늘 기도하고 있어. (여·75세)

이런 목욕차가 많이 있으면 해...

아이구, 뭘 바래 너무 고맙지. 나 같은 병신 목욕 시켜주는 것도 고마운데, 저기 우리동네 나 같은 할망구가 있대. 그 할망구도 좀 씻겨주고, 이런 목욕차가 많이 있었으면 해. 그래야 우리 같은 늙은이들도 편하게 살지. (여·77세)

자주 씻겨 줘 그러면 더 바랄 것 없어...

목욕이나 자주 씻겨 줘. 그러면 더 바랄 것 없어. 너무 좋아 그리고 목욕시키는 선생님이 건강해야 우리들도 좋지. 목욕 안 빠지고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사는데 공짜로 해주는 목욕까지 못 하면 너무 처량해. 이렇게 사는 것도 서러운데... (여·77세)

자주 목욕 시켜주면 고맙지

때를 깨끗이 씻어 주어서 참 좋지. 자주 목욕 해주었으면 좋겠어. 노인네가 바랄게 뭐 있겠어. 그리고 우리 할멈 병원에서 목욕을 했는데 집에 와서는 한번도 못했어. 할멈이 힘도 없고 이렇게 누워만 있잖아. 그렇다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내가 씻겨 줄 수도 없잖아. 그러니 목욕 좀 시켜 줘. (남·82세)

목욕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 해

허. 음 한가지 목욕차를 더 많이 만들어서, 우리같이 누워서 지내는 사람들 좀 깨끗하게 씻겨주면 좋겠어요. 목욕 못하는 사람들은 나를 부러워해. 참 세상이 좋아졌어. 이렇게 사는게 너무 좋아... (남·77세)

목욕차를 더 만들어 불쌍한 사람 좀 씻겨 줘...

그만하면 됐어. 더 바라면 나쁘지. 내 생각에는 목욕차를 좀 더 만들어서 진짜 누워서 나같이 똥·오줌 못 가리는, 사람들하고 혼자서 생활하는 늙고 힘없는 불쌍한 사람들 좀 많이 시켜 줘. 시장인가 구청장인가 누구한테라도 말해서라도 자주 시켜 줬으면 해 (남·61세)

잘 번창해서 이름을 떨쳤으면 좋겠어

복지관에서 우리를 많이 도와주고 목욕차도 많이 만들어서, 선생님도 건강하고, 잘 번창해서 이름을 떨쳤으면 좋겠어. 지금은 세상이 너무 좋은 것 같애. 옛날에는 생각도 못했지. 참 좋은 세상이야. (여·76세)

지금 같이만 하면 되지 뭐

지금 같이만 하면 돼지 뭐. 내가 쓰러졌을 때 콧 죽었어야지 자식들한테 안 미안하지. 늘 기도해 빨리 가게 해주라고, 오래 앓아 누우면 옛말이 딱 맞아 오랜 병에 효자 없다고, 집에 찾아와도 하룻밤 자고 가는 애들이 없어. 그냥 가. 그때가 서운해. (남·67세)

나 같은 힘없는 노인네들 좀 많이 시켜 줘

나같이 힘없는 노인네들 좀 많이 시켜주고, 목욕시켜주는 사람도 건강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 할멈도 혼자서 목욕을 못해 많이 아픈가봐. 어떻게 우리 할망구도 좀 시켜 줘. 우리 같은 사람들 많이 도와줘. (남·92세)

이런 목욕차가 구마다 10대씩은 있어야지

뭐 지금으로서는 너무 잘 해주지 이 이상 더 바라면 나쁘지. 뭐 앞으로 이런 목욕차를 구마다 10대씩은 있어야 된다고 봐. 지금도 제대로 목욕을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좀 신경 써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면 좋겠어. (남·67세)

목욕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

다 좋지 뭐. 목욕이나 좀더 시켜줬으면 좋겠어. 중풍 걸린 병신들은 몸을 차갑게 누이면 몸이 굳어지는 느낌이 들어, 그런데 목욕을 하고 나면 굳은 몸이 펴지지. 너무 좋아 목욕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

(여·77세)

나는 그런걸 몰라 목욕이나 많이 시켜 줘

나는 그런걸 몰라. 목욕이나 많이 시켜주고, 우리 정신나간 딸년도 가끔 한번씩 해주쇼. 저년만 보면 죽고 싶다가도 마음대로 안돼라우. 다른 자식들은 잘살지 못해도 그럭저럭 사는데 저년은 시집 갔다와서 무슨 충격을 받았는지 아직도 저 모양 저 풀이지라우. 그라고 선상도 몸 건강해야해.

(여·81세)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나 자주 씻겨 줘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나. 나 좀 많이 시켜 줘. 늙으면 냄새가 나는데, 나 같은 병신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스스로 못해. 그러니 얼마나 냄새 나겠어. 목욕을 좀 자주 시켜줬으면 좋겠어.

(남·86세)

4. 인생회상 및 평가

다음은 ① 최고의 시기 ② 가장 후회스러운 일 ③ 주위 사람들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생각 ④ 사회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생각 ⑤ 인생을 다시 산다면 어떻게 살고 싶은가 ⑥ 현재의 희망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 개별심층면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최고의 시기

사례노인들이 인생을 살면서 최고의 시기를 인식함에 있어 남녀 노인들이 현저한 차이를 나타냈다. 우선 여자 노인의 경우 결혼해서 남편하고 같이 생활했을 때를 최고의 시기로 꼽았으며 남자 노인의 경우 경제활동 시기를 최고의 시기로 꼽았다. 이는 우리 나라 전통적인 부부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례노인들 중 살면서 한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고 대답한 경우도 4명이
나 있었는데 이는 인생을 살면서 경제적인 궁핍, 배우자의 외도, 자녀들의 불효 등
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현재 지속적인 건강의 악화
로 삶이 힘들고 지쳐 행복했던 기억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런 의견
은 다음의 사례에 잘 나타나 있다.

거품 목욕 시켜 준 거 호강이야

병들어 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밥 먹고 살만 한 게, 병들어 가지고 불품없어. 있으면 이 쓰레기 같은
인간한테 거품목욕 시켜준 거 난 호강이야. 그래서 딸년한테 자랑하면 딸년은 뭐래는 줄 알아 늙어서 호강
한데… (여·65세)

자식들이 오손도손 모여서 사는 게

영감님이 공무원이었는데, 그때는 안정적으로 직장생활하고 편안하고 좋았지. 자식들이 번창하고 모여서
오손도손 사는 게, 그때는 너무 행복했었지. 그때는 좋았지 영감 죽고 나서 너무 외롭고 사는 게 힘들어.
(여·75세)

착한 영감 만나서 행복했었지

그때는 철이 없어서, 처음 결혼 할 때가 좋았어. 지금은 두 번째 영감 만나서 좋았어. 우리 영감이 너무
착해, 나는 성질이 못돼서 투정 부리고 그랬는데, 다 들어주고 그랬어. 참 착한 영감이야. 내가 자식 복은 없
어도, 남편 복은 있어. 애가 귀해서 어쩔 수 없이, 나 양아들 얻었어. 그때 가 좋았지. (여·73세)

지질이 복도 없지 좋았던 때가 한번도 없어

좋았던 때는 없어. 지질이 복도 없어서 15살에 가난한 집에 시집가서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 시어머니가
호랑 이었어. 시집살이 말도 못했어. 고생만 했어. 좋았던 때는 없었고, 내복에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 그래
서 한번 잘 살이 봤으면 하지. (여·77세)

힘은 들어도 지금 같이는 살지 않아서

일본에서 광부 생활 할 때 돈도 벌고 일본여자랑 잠도 많이 잤어. 할망구는 모르지. 그때는 좋았어. 힘은 들었어도 지금 같이는 살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하고 싶은 것 다하고 먹고 싶은 것 다 먹었어. 그때 같이만 살아도 좋겠어. (남·82세)

골프도 치고 안 해 본 것 없어요.

나는 군에서 오래 근무했지요. 장교였지요. 그때가 너무 좋아요. 아기씨도 많이 따르고 그때는 아메리카도 갔다 왔지요. 골프도 치고 안 해 본 것 없지요. 그때는 지금 말로 참 잘 나갔지요. 그때가 좋아요. 그러니 지금 생각하면 사람 팔자 시간 문제지요. 지금은 너무 늙어서 생각도 못하지요. (남·77세)

젊었을 때 돈 많이 벌었어

나 젊었을 때 밀수했었어. 뭐 여자화장품이나 미원 같은 거 있잖아. 그때는 그런 물건을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어. 옛날 얘기가 순경한테 잡혀 매도 맞았지. 그때 죽다가 살아났어 그때부터 병신 된 것 같아... (남·61세)

나는 좋았던 때가 한 번도 없었어

몰라 어영부영 다 지나갔어. 좋았던 때가 없었던 것 같아. 남편 복도 없어 빨리 죽었지. 그 영감 이 얼마나 내 속을 썩였는지, 노름에 미쳐서 재산 다 날렸어. 그래 선지 자식복도 없고, 나는 좋았던 때가 한 번도 없었어. (여·86세)

결혼하고 처음 살림 할 때

결혼하고 처음 살림 할 때는 너무 잘 살았어.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많이 사 주고, 옷도 최고급으로 해줬어. 그때 우리는 공장을 했는데, 우리 영감이 죽자 순간 망했지 뭐. 잘 사는 것도 순간이야. (여·76세)

아프지 않고 식구들이 잘 살 때까지 뭐

그런 것은 생각이 안나. 잘 기억이 안돼. 돈도 좀 벌어 하나님한테 십일조도 많이 내고 감사헌금도 많이 냈지. 젊었을 때는 무서운 게 없었어. 좋았던 때는 지금같이 안 아프고 식구들과 오손도손 살 때까지 뭐... (남·67세)

자식이 없어도 행복했었지

자식 없이도 할멈하고 오손도손 살면서, 서로 돕고 그런 거지 뭐. 그런데 지금은 둘 다 아파서 누워서 지내는데, 늙어서 너무 힘들어. 빨리 가야지 뭐. 나죽고 없으면 우리 할멈 혼자 지내야해. 그게 제일 걱정이야. (남·92세)

돈을 많이 벌어서 남부럽지 않을 때

돈을 많이 벌어서 남부럽지 않을 때 그때가 마흔 다섯에서 예순 살까지 돈 많이 벌었어. 집장사를 했는데 그때는 집이 7채가지 가지고 있었지. 근데 이혼해서 나쁜 할망구한테 다 빼겼어. 지금은 그 뒤로 나는 사람을 잘 안 믿어. 우리 자식들도 자기 어머니인데도 욕을 할 정도니까? (남·67세)

나는 좋았던 때가 없어서

좋았던 때가 없어서 영감이 쌀쌀하고, 자식들도 싫어하고, 인정이 없어서 나는 지질이 복도 없어. 사는 게 너무 힘들었고, 살면서 안 해 본 일이 없을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어. 차라리 그나마 지금 이대로 살아가는 게 더 좋아. (여·77세)

살면서 좋은 일이라고는 없었어

뭐 있간이 밤 낮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어. 염병할 골병들고 살다가 좋은 일이라고는 없어. 내 팔자는 염병할 팔자야. 얼른 황천 갔으면 좋겠어. 딸자식들 잘살고 못살고 상관 안 해. 이제는 지치고 힘들어라우. (여·81세)

내 일 하면서 내 마음대로 생활했지

젊었을 때는 학교 다닐 때가 좋았지. 중학교 졸업하고 철로 생활을 했는데, 너무 좋았어. 그때는 젊은 혈기에 무서운 것도 없었고, 내 마음대로 생활했지. 지금은 병신이야. 아무 것도 못해. 속상해 세월이 참 빠르지. (남·86세)

2) 가장 후회스러운 일

사례노인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스럽고 힘들었던 일에 대한 인식은 두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우선 가족의 불화를 들 수 있다. 남편의 외도 등 불행한 결혼생활, 자식의 불효 등을 가장 힘들고 후회스럽고 되돌리고 싶은 삶이라고 대답했으며 두 번째로 사례노인들은 와병 중에 있는 관계로 병을 얻게된 시기나 얻게된 원인 혹은 병세 초기에 병을 간과했던 일에 대해서 가장 후회스러움을 나타냈는데 이러한 견해는 다음이 사례에 잘 나타나 있다.

할멈 죽고 자식 죽는걸 보고

할멈 죽고 자식 죽는 걸 보고 내가 다 미쳤어. 어떻게 할 수 없었어. 그때는 먹고살기도 힘들었는데, 며느리는 갓난아이 나두고 도망갔어. 나쁜 년 자식이 보고 싶지도 않나 봐. 연 락도 없어. (남·86세)

영감이 바람피워 마음 고생 많이 했지

나 젊었을 때 고생 많이 한 거지. 지금도 영감이 살아 있는데, 다른 할망구랑 살고 있지. 그래도 이렇게 병신 돼서 나도 뭐라고 말을 못 해. 이리 참 아픈 거 한동안 죽었으면 했는데, 얼른 갔으면 했는데 그런 마음 두 번 먹었어. 근데 다시 살아나 나한테 자식들이 맨 날 누워있는 농작 이래. (여·65세)

수술을 해서 병신 된 거지 뭐

수술을 왜 했는가? 병신이 된 거 왜 장애인이 됐는가? 다 운명이야. 그리고 우리 딸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사회 생활도 못하고, 시집도 못 가는 것이 항상 마음에 걸리지. 나 죽으면, 누가 돌봐 주나 다른 자식들도 돌볼 마음들이 없어. 별수 있나 장애인 시설에 입소 시킬거야. (여·75세)

중풍 걸리고 나서 병신 된 기분 알아

중풍 걸리고 누워서 지내는 것 전에는, 동네에서 일 잘하고 너무 재미있게 생활했지. 우리 영감하고 나가서 일하고, 둘이 먹고사는 데는 힘들지 않았어. 그러면 뭘 해, 몸이 아프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병신 된 기분 알아. (여·73세)

다 늙어서 자식 복 없는 거지

가나한 집에 시집가서 구박받고, 일도 안 해 본 일이 없어. 그렇다고 좋은 남편 만난 것도 아니고, 매일 두들겨 맞고 그랬지. 그렇다고 자식 복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없어 그저 지금 사는 게, 마음 편하고 너무 좋아. (여·77세)

너무 가난해서 동생하고 헤어진일

내가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 동생하고 헤어지고 아직도 몰라.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때 이후로 연락이 끊어져서 지금은 나 혼자야. 친척도 없고 그래. 명절 때가 되면 너무 외롭고 쓸쓸해. 누가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 사람이 그리워... (남·82세)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제일 힘들어요

퇴직하고 사업을 했어요 망해서 거지 된 것 아니겠지요. 음 사는 게 허탈하고 그때는 여러번 죽을 생각도 했어요. 그때 할멈을 만나서 다시 마음먹고 살았는데 중풍이 올지는 몰랐어요.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제일 힘들어요. 나는 고생을 많이 안 해 봐서 잘 참지를 못해요 우리 할멈이 고생이 많아요. (남·77세)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화가나

자식이 없어 순경한테 맞아서 장파열 수술했는데, 근데 밑에까지 신경이 다쳤대.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화가나. 수술 많이 했어. 나는 씨도 없어 할멈한테 미안해. 지금까지 나만 보고 살았는데 할멈이 불쌍해 (남·61세)

병신이 될 생각하겠어

모르겠어 좋은 일도 그냥 그럭저럭 지내는 거지. 누워서 생활하는 병신이 될 생각하겠어. 지금은 그나마 나라에서 돈도 조금 주고, 그걸로 생활하지. 그래도 굶지 않고, 입에 풀칠은 하고 사니까 다행이야. (여·86세)

의사를 잘못 만나

의사를 잘못 만나 다리를 절단 한 거지. 지금 같으면 수술 안 해도 됐는데, 우리 큰아들이 제일 마음 아파해. 지금도 한번씩 보러올 때 나보고 그래. 병신같이 당하고 있었다고 그래. 다 내 복이지. 안 할 수술을 해서 병신 된 일이지 뭐. (여·76세)

여자 가까이 해서 중풍이 왔어

이병은 여자 가까이 해서 중풍이 왔어. 여자 가까이 하면 중풍이 오지. 젊었을 때 바람을 피웠어. 여자들이 그렇게 따라다녔지. 우리 할멈 고생 많이 했어. 지금은 몸이 이렇게 됐는데도, 정이란 것이 무서워. 미운정이 들었지 뭐. (남·67세)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는 게

지금이야 제일 나. 걱정이 있어도 속이 상해도 참고 살아. 그나마 나라에서 생활비도 조금 나오고 아프면, 나는 병원 입원도 안 시켜 줘. 제일 피로워 너무 늙어서 그렇대.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는 게 제일 속편하지. (남·92세)

부부는 갈라서면 남이야

할머니 나버리고 이혼해서 나간 것이야. 지금 우리 집 하고 가까운 곳에 살고있는데, 쳐다보지도 안 해. 자식들도 마찬가지로. 몇 십 년을 같이 살았어도, 부부는 갈라서면 남이야. 늙어서 노인네들이 주책이지. 어디 가서 말도 못해. (남·67세)

자식들이 성공한 놈 한 명 없어

내가 복이 없어서 자식들이 성공한 놈 한 명 없어. 다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이 항상 걸리 지. 그래도 큰아들이 성질이 급해도 마음은 착해. 큰아들이 중풍 걸렸는데 빨리 낫고 돈도 좀 많이 벌어서 고생 안 했으면 해. (여·77세)

가난한 집에 시집가서

영감 잘못 만나 가난한 집에 시집가서 고생 많이 했어라우. 병들고 힘들어서 몸이 너무 많이 아프고 딸자식들 다 못사는 것 보는 것 다 내 복이지라우. (여·81세)

3) 주위 사람들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생각

사례노인들의 주위사람들에 대한 생각으로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동시에 나타났는데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노인의 경우 종교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의 보호 및 관심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현재 사례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대부분 생활보호대상 밀집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은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저 교육과 저 취업 등으로 모두 자기살기 바쁘고 인심이 야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견해는 다음의 사례에 잘 나타나 있다.

이 동네는 쌍놈의 동네야

내가 안나가니까 상대도 안 해. 다 필요 없어. 이 동네는 쌍놈의 동네야. 뭐 생기면 나누어 먹을 지도 몰라. 자기들 입에 다 쳐 먹으라고 바쁘지. 세상이 많이 변했어. 옛날에는 인심이 좋았지. (여·65세)

도움 많이 받았어

내가 답답할 때 밖에도 나가고 많이 도와줘. 살림도 맡아서 도와주는 아줌마가 있었는데 지금은 안 와. 그 아줌마가 참 좋았는데, 도움 많이 받았어. 지금은 이사가서 전화 연락만 가끔 오지 집에 한번 놀러 오면 좋겠어. (여·75세)

그래도 고마운 사람 있어

누워서 생활하는데 뭘 알아. 그래도 고마운 사람 있어. 통장 아줌마가 다 해줘. 영감 있을 때는 도우미 아줌마가 와서 청소하고 그랬는데, 영감이 요양원에 들어가자 오지 않아 그래서 통장 아줌마가 많이 도와주지. 나 목욕 좀 많이 시켜 줘. (여·73세)

인심이 너무 고약해

이 동네는 가난한 사람이 많아서 다 힘들게 살아. 하루 벌어먹고 살잖아. 그러니 얼마나 인심이 안 좋겠어. 매일 보면은 머리채 잡고 싸움하는 게 일이고, 뭐 하나 생기면 서로 가지고 갈려고 그러지. 인심이 너무 고약해... (여·77세)

참 인심이 아박해

물론 공짜로 목욕시켜주는 고마운 사람도 있지만, 이 동네는 워낙에 가난하게 살아서 자기들 배 채우기에 바쁘지. 옛날에는 서로 없어도 잘 나눠 먹고 그랬는데, 요즘 세상은 그런 것도 없어. 참 인심이 아박해. (남·82세)

세상 참 좋아

고맙지. 부인 없으면 동네 사람들이 밥도 차려주고, 그래 인심이 너무 좋아. 나는 국가공무원이야. 장애자 월급도 나오잖아. 세상 참 좋아. (남·61세)

주위에서 많이 도와줘

혼자 사니까. 주위에서 많이 도와줘. 나는 성당에 나가는데, 우리 집에서 미사 불려고 사람들이 많이 와. 너무 좋아. 내 주위에는 다 착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여·86세)

잘하는 사람이 많아

나한테는 잘하는 사람이 많아. 다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며 생각해. 매주 교회에서 봉고 차를 보내 나를 태우고 가지. 그런데 너무 미안해. 나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좋은 사람 만나고 은혜 많이 받고 오지 뭐. (여·76세)

이 동네 인심은 별로야

매일 누워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사는 게 힘든 거 같애. 교회에서 1주일애 한번씩 구역 예배보고 그래. 그런데 이 동네 인심은 별로야. 너무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나봐. 서로 이해 해주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게 없어.
(남·67세)

이 동네 사람들은 참 착해

날 도와주러 와서 고맙다는 생각은 늘 하지. 아줌마가 들려주면 고맙고 안 오면 또 속상해. 늙으면 애가 되나봐 이 동네 사람들은 참 착해 인사도 잘하지.
(남·92세)

도움도 많이 받았는데

다 잘해 줘 도움도 많이 받았는데, 항상 미안하지.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돈이라 도 있으면 인심이라도 쓸텐데, 병신이 뭐 가진 게 그 나쁜 할망구가 다가져가고, 중풍 걸려 병신처럼, 누워서만 지내는 데 하나도 없어. 너무 힘들어.
(남·67세)

아직도 인심은 잃지 않은 것 같은데

병나고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 내가 안 아플 때 사람들에게 내가 잘했지. 아직도 인심은 잃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뭘 해. 누워서 지내는 병신인데...
(여·77세)

즈그들 먹고살기 바쁜데

잘해주긴 뭘 잘해 줘 나는 공것 안 바래. 아휴, 다 즈그들 먹고살기 바쁜데, 여기는 인심 이 안 좋아 못사는 동네로 해도 해도 너무혀.
(여·81세)

사람들도 오지도 않아

요렇게 누워 있으니깐. 뭐 친구도 없고 우리집에는 별로 사람들이 오지도 않아. 도우미 아줌마가 와야지 세상사는 이야기 듣지. 도우미 아줌마가 너무 잘해 줘.
(남·86세)

4) 사회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생각

사례노인들이 사회에 어떤 생각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선 ‘무관심’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거니와 관심조차 없었다. 오랜 동안 와병생활로 인해 사회에서 격리되어 나타나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사회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례노인의 경우 이동목욕 서비스 수혜와 관련하여 혹은 주위의 도움에 대해 사회가 참 좋아졌다 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례노인들은 오랜 동안 집안에서 와병생활로 인해 하루의 많은 시간을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보는 때가 많아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범죄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러한 견해는 다음의 사례에 잘 나타나 있다.

좋은 세상이야

좋은 세상이야 갈수록 좋아져. 내가 차에서 목욕 할 줄은 몰랐거든, 우리 손녀딸이 사는 세상은 얼마나 좋을까. 더 오래 살면 좋겠는데 자식들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빨리 죽어야 서로 편하지. (여·65세)

너무 각박하고

너무 각박하고 그 중에도 좋은 일하는 사람도 많아서 좋아. 사는 것도 착하게 살아야지. 복 받아 지금 사람들은 너무 욕심이 많아서, 화병 생기는 걸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본다니까? (여·75세)

그런 거 잘 몰라

몰라. 빨리 죽어야지. 병신 살아 뭘 해 그런 거 잘 몰라 사람 사는 것이 다 그렇지. 이웃집 할머니나 놀러 와야지. 동네 사람들 이야기 듣고 그러지.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 아무 것도 몰라. (여·73세)

이렇게 사는 게 좋아

그냥 고맙지. 더 바랄 것도 없어.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좋아. 나라에서 돈도 나오고 그나마 입에 풀칠은 하게끔 도와주잖아. 그게 고맙지 더 안 바래. 나 같은 늙은이도 혜택받고 살지. (여·77세)

세상이 날로 험악하고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 다 자기들 실속 차리기에 바쁘고, 선생들 같이 고마운 사람도 있지만 세상이 날로 험악하고 그래. 텔레비에서도 세상 좋아지는 것만 나오지 인심 좋고 그런 얘기는 안나와. 사람 죽이고 맨 날 그런 얘기야 거의 누워서 지내도 알건 다 알아. (남·83세)

좋은 세상이지요

좋아요. 음 허허허 물좀 줘 좋은 세상이지요 더 살면 좋은 세상에서 살겠지만, 살아있는 동안 할멈 고생시키고 자식들 고생시키고 뭐 다를 것 없지요 빨리 죽어야디... (남·77세)

좋은 세상이야

좋은 세상이야. 내가 차에서 목욕 할 줄은 생각도 안 했어. 이만하면 좋지 뭐. 병신도 씻겨주고 앞으로 더 좋아지면 좋아지지. 너무 좋아 혜택도 많이 받고 있어. (남·61세)

몰라 모르지 뭐

몰라 모르지 뭐. 아무생각 안 해. 텔레비 안보니까 늙은이가 뭘 알겠어. 아무 것도 몰라. 말한 것도 금방 금방 잊어버려. 죽을 때가 됐어. 아무 기억도 없고 잠잠해. 노인네한테 별걸 다 물어봐. (여·86세)

그런 거 잘 몰라

나는 그런 거 잘 몰라. 집에서 거의 누워 생활하는데, 뭘 알아. 텔레비도 잘 안 봐. 늘 기도하지. 우리 손녀가 너무 불쌍해. 무슨 놈의 충격인지 정신이나가 들어오지도 안 해 어떻게 고칠 수 없을까? (여·76세)

잘 모르겠어

바깥에는 안나가니까 잘 모르겠어. 텔레비에서 연속극을 보는데 재미있고 웃기는걸 봐. 제일 마음에 들어, 상황이 이러니 마음이라도 편해야지. (남·67세)

요즘은 사는 게 다 힘든가 봐

요즘은 사는 게 다 힘든가봐. 텔레비를 봐도 그렇고, 라디오를 들어도 다 똑같은 내용이고, 그래 우리 같은 사람들은 먹고사는 게 더 급하지. 정치가 어떻고 그런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 (남·92세)

사는 게 참 무서워

왜 자꾸 이상한 거 물어봐. 밖에 나가지도 않은데 참 세월이 많이 변해서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은, 사람들이 정이 없는 것 같아. 다 자기들만 챙기고 욕심 부리고 그러지. 사는 게 참 무서워 병신이 될 알겠어. (남·67세)

내가 무슨 생각이 있나

내가 무슨 생각이 있나. 몸이 성해야지 건강한 사람 보면은 너무 부러워. 나도 언젠가는 낳겠지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돼. 나이 먹으니까 더 힘들어 해. (여·77세)

몰라... 몰라...

몰라.... 휠체어 하나 줘. 바람 좀 쐬고 싶고 밖에 나가서 사람 구경도 하고 사람 사는 거 보고 싶기도 하지. 맨 날 방에만 쳐 박혀 있으니까, 어지럽고 그래. (여·81세)

세상 참 좋아졌지

세상 참 좋아졌지. 내가 차에서 목욕 할 줄은 생각도 못했고, 복지관에서 많이 도와줘서 밥 먹고사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걱정이란면 손녀딸이 걱정이지. 자식 낳고 한번도 찾아 오지 않는 며느리가 어디 사람이여, 짐승만도 못하지. (남·86세)

5) 인생을 다시 산다면 어떻게 살고 싶은가?

사례노인들이 인생을 다시 산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의견은 오랜 동안 와병 중에 있으면서도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고 싶다는 소망을 나타냈고, 여자노인들의 경우 남편으로부터 사랑 받고 싶어하는 소망을 나타냈다.

또한 사례노인들은 현재 자신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고 고 이것을 미안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강하여 다시 산다면 남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을 나타냈다. 이런 견해는 다음의 사례에서 잘 나타난다.

돈 많은 회장님 만나서

돈 많은 회장님 만나서, 그대로 사랑 받는 아내가 되고 싶고, 이렇게 누워서 생활하는 것도 지쳤어. 나도 걸어다니면서 시장도 보고, 정상인처럼 생활하면서 사는 것이지. 어이구 창피해도 말하니까 기분이 좋아.

(여·65세)

더 좋은 세상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지

지금 현실보다 더 좋은 세상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지 뭐. 더 있겠어. 욕심 부리지 않고 베풀면서 다 잘 사면 좋은 거지 뭐. 다 살면 좋지 뭐.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싶고 걸을 수 만 있다면 더 열심히 살고 싶어.

(여·75세)

더 바랄게 없어 영감이 너무 잘 해줬어

뭐 잘살고 싶지. 나한테는 자식이 귀한데 자식 좀 많이 낳았더라면. 행복하게 살고 싶지 뭐. 더 바랄게 없어, 영감이 너무 잘 해줬어. 일어나다가 들어올 때 맛있는 거 꼭 사 가지고 들어왔지. 지금은 영감이 없어서 별로야.

(여·73세)

나도 베풀고 살고 싶어

좋은 영감 만나 시집가서 살고 싶어. 이 좋은 세상이 다 해 보고 싶고 그러지 뭐. 입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도 많지. 돈이 많으면 없는 사람도 도와주고 싶고 매일 받기만 하는 입장이며, 나도 베풀고 살고 싶어.

(여·77세)

식구들하고 화목하게 살았으면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동생이 보고싶어. 식구들하고 화목하게 살았으면 먹고싶은 것 마음대로 먹고, 우리 할망구 돈이 있으면 치료가 되는데,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속상해. 이럴 때 다른 집들은 자식들이 잘 되서 병원비도 걱정 안한 다는데, 우리는 자식들이 있어도 쓸만한 게 하나도 없어.

(남·82세)

돈 좀 많이 벌서 고생하는 자식들 좀 주고

원 없이 살았어요. 다시 살면은 돈 좀 많이 벌어 고생하는 자식들 좀 주고, 우리 할멈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어요. 나 만나서 너무 고생만 해서 할멈이 많이 아프고 불쌍하네요. (남·77세)

이대로 살다 죽고 싶어

인제는 싫어. 이대로 살다 죽고 싶어. 그래야 서로 편하지. 우리 할멈도 10년 넘게 병수발 하느라고 온몸이 다 아프대. 아마 나 죽으면 할멈도 앓아 누울거야. 나 죽으면 누가 우리 할멈 돌봐주나. 나는 죽어도 그게 제일 걱정이야. (남·61세)

좋은 영감하고 오래 오래

이보다 더 잘 살고 싶어. 좋은 영감하고 오래오래 살고 싶고, 자식들도 많이 낳고, 배불리 먹고 지금 보다는 더 잘살고 싶지 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현재는 병신 돼서 누워있는데 다 필요 없어. 이래서 웃지 뭐. (여·86세)

좋은 일만 하고 싶어

하나님을 믿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고 싶어. 나쁜 일은 안하고 좋은 일만 하고 싶어. 다시 태어나면 휠체어 안타고 걸어서 고향도 가보고, 지금까지 빛진 사람들에게 다 갚아야지. (여·76세)

훌륭한 아버지가 되고 싶고

큰일을 해보고 싶어. 건축 일을 크게 한번 하고싶어. 할멈 모르게 바람피워서 마음 고생시킨 거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훌륭한 아버지가 되고 싶고 뭐 많지. 하나님한테는 늘 잘하고 감사헌금 꼬박꼬박 내는 사람이 지 뭐. (남·67세)

미쳤어 죽으면 그만이지

미쳤어 죽으면 그만이지. 사는 게 힘들어. 다시 산다면 자식을 많이 낳고 싶고 행복하게 살면서, 손주도 보고싶고 요즘은 늙어서 그런가. 사탕이 맛있어.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그래. (남·92세)

안 아파야지 다른 것 없어

안 아파야지 다른 것 없어. 중풍이란 게 무섭다고 전혀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는데, 나이까지 먹으니 더 힘들드라구. 선생도 몸 잘 아끼고 건강해야지. 지금은 하나님 믿고 조용히 살고싶어. 내가 생각하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 (남·67세)

좋은 영감 만나고 자식들 잘 사는 거 보고 싶고

좋은 영감 만나고 자식들 잘 사는 거 보고싶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때는 말도 마. 중풍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고 싶고, 남한테 바라지 않고 베풀면서 사는 게 좋겠지. (여·77세)

고생 안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살고 싶어

부잣집에서 잘 태어나 고생 안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살고 싶어. 나 고생 많이 했어. 지금같이 살면 죽는 것만 못하지라우. (여·81세)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구 자식 잘되서

그저 잘살기도 뭐하고 평균적으로만 살고 싶지 뭐. 그저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구 자식들 잘 되서 서로 도우면서 사는걸 보고싶어. 자식들까지 힘들어하는 걸 보면 너무 마음 이 아퍼. (남·86세)

6) 현재의 희망사항

대부분의 사례노인들의 현재 희망사항으로 가정의 평화와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것이 제일 많이 나타났으며 두 번째로 사례노인 자신의 병이 완쾌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컸다. 또한 경제적으로 풍요로와 저서 남은 여생 편안하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견해는 다음의 사례에 잘 나타났다.

한 10억만 벌어

자식들 얼른 잘 돼서 이 생활에서 끝내고, 한 10억만 벌어 잘살아 보는 거고, 늦게 본 아들이 장가를 못가고 있어. 그 놈 장가가서 손자 한번 안아보고, 그리고 지금 이혼한 딸이 좋은 남자 만나서 재혼해서 평안한 가정 꾸리고 살면은 더 바랄 것 없어. (여·65세)

베풀고 사는 게 좋아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 잘 믿고 자식들도 남한테 받지 말고, 남한테 베풀고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장애인인 착한 우리 딸도 무시당하지 않고 사는 게 내 소망이야. (여·75세)

안 아팠으면 좋겠어

몸이 너무 아픈데 안 아팠으면 좋겠어. 별걸 다 물어봐 그리고 영감이 요양원에 있는데 한번 가서 보고 싶어. 미안해서 아줌마한테 가자는 말도 못했어. 우리 영감도 많이 아픈가봐 나 때문 에 고생 많이 했지 병신 돌보느라구.

(여·73세)

바랄게 없어

이렇게 병신 돼서 사느니 빨리 가는 게 좋겠지. 바랄게 없어. 자식이 있어도 제 구실도 못하고, 돈 벌 생각도 안하고, 그러니 결혼도 못했지. 내가 죽기 전에 빨리 결혼해서 손주보고 싶고 그러지. 더 바라는 거 없어.

(여·77세)

맛있는 거 한번 먹어 봤으면

바랄 것 없어. 그냥 제때 맛있는 거 한번 먹어 봤으면 해 거 있잖아. 세월이 좋아져서 별거다 있대. 그리고 자식들이 잘 되서 돈도 많이 벌고, 잘살아서 사는 거 걱정 안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더 바랄 것도 없어.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남·82세)

자식들 성공해서 잘 살았으면

음. 할머니 많이 아픈데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지금 자식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경제가 풀려서 자식들 성공해서 잘 사는 거 보는거지요. 뭐 손주 녀석들이 제일 보고 싶지요..

(남·77세)

재미있게 살다가 죽고 싶지

빨리 가야지. 할망구가 불쌍해서 원 자식이라도 있으면, 빨리 가도 마음이 놓이는데 자식하나 주워서 재미있게 살다가 죽고싶지. 둘이 사니까 너무 외로워. 특히 명절 때는 더하지. 그래서 우리는 문을 잠그고 집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해 놓고 그래. 사람이 너무 그리워.

(남·61세)

딸년 하나 있는 거 고생 안하고 잘 사는 거 보고 싶고

지금 뭐 있겠어. 다 늙어 죽어 가는데, 음 뭐니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야. 선생도 아프지 말어. 그래야 안 빠지고 나 목욕하잖아. 딸년하나 있는 거 고생 안하고 잘사는 거 보고싶고 오래 살면 좋은데, 다른 사람한테 폐 끼치는 게 싫어.

(여·86세)

자식들 잘되고 하면 좋지

하느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사는 곳에서 살고 싶고, 자식들 다 잘 되고 하면 좋지. 그리고 정신나간 손녀딸 제정신 차리면 좋겠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거야. 근데 그런걸 왜 물어봐. (여·76세)

이 상태보다 낫아 졌으면 좋겠어

현재 이 상태보다 낫아졌으면 좋겠어. 자식들도 잘되면 좋고 하나 애는 잘 됐는데. 나머지 애들은 별 볼 일 없어.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 할멈 안 아팠으면 좋겠어. 내가 봐도 너무 지쳤어. 매우 힘들어해. 불쌍해 죽겠어. (남·67세)

부부가 같이 빨리 갔으면 해

이제 더 늙어지면 늙어지지 빨리 갔으면 하는 거지 우리 할멈이 불쌍해 혼자서 친척들이 다고 해서 자식들만큼 신경을 안쓸거라구 부부가 같이 빨리 갔으면 해. 늘 걱정이야 할멈도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데 나 없으면 누가 올려나 자식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걸. (남·92세)

손주들과 가까워 졌으면 해

뭐 새끼들이나 잘되고 손주녀석들이 나를 멀리하고 있는데, 빨리 가까워졌으면 하는 마음이야. 내가 돈 많고 땡땡거리고 살았어봐. 이렇게 까지 나를 무시하겠어. 참 험악해 낳아 준 자식들한테까지 무시당하니, 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 세상에서 편안히 지내고 싶어. 다 필요 없어. (남·67세)

자식들이 나한테 잘 하는 게

자식들이 나한테 잘 하는 게 소망이야. 죽을 때가 됐는데 내가 잘못해서 다 이렇게 됐어. 그리고 큰아들 고생하는데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여·77세)

아이고 죽었으면 해

내가 하고 싶은 거 누가 해줘 바라는 거 없어. 바랄 것이 뭐디 아이고 죽었으면 해. 딸들도 온다고 하고 오지도 않아. 정신병 걸린 딸 하나 있는 거 빨리 좋아졌으면, 그라고 사는 것 도 너무 재미가 없어라우. 사람 같이 사는 게 좋겠지라우. (여·81세)

손녀딸 시집가는 거 보고싶은 거지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고, 어떻게든 먹고사는 거지. 그저 사는 날까지 조용히 남한테 바라지 않고, 사는 거지 뭐. 내가 손녀딸만 생각하면 내가 잠이 안 와. 살아 있는 동안 손녀딸 시집가는 거 보고싶은 거지. 뭐 다른 게 있겠어.

(남 · 86세)

제 5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이동차량목욕 서비스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동 목욕 서비스 수혜 노인을 대상으로 목욕서비스에 만족도를 사례별로 분석하여 초기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 이동목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바람직한 서비스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연구에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서울 노원구 소재 평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동목욕서비스 수혜 사례노인 15명을 대상으로 개별심층면접을 실시하여 노령기간의 연장에 따른 자녀들의 와병 노부모에 대한 태도는 어떤가, 이동목욕 서비스의 만족도를 살펴보고, 노인의 소외감과 외로움은 어떠한 상황적 특성에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례노인들이 겪어왔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현재의 희망사항에 대한 기대 등의 사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노년기에 대한 인식

노인 대다수는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여자 노인이 남자 노인에 비해 스스로 노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연령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남자 노인들이 노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마음은 젊다’라는 인식과 함께 와병 생활을 하면서도 늘 밝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볼 수가 있었다. 그리고 노인들이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생각하고 싶어하지 않는 이유는, ‘노인’이라는 말 자체가 일반적으로 ‘쓸모없고 무기력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가지게

한다는 부정적 인식 때문이었다.

노인으로 느끼게 된 주요 계기에 대해서는 이동목욕 서비스 지역에 상관없이 ‘기력이 없어질 때’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신체상의 변화 또는 생활주거상의 변화로 인해 노인이 된다고 인식하는 노인들에게 이러한 시기가 주로 어떠한 연령에서 일어나게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 본 결과, 대체로 연령 구분없이 와병 상태에 따라 나타났다.

2) 건강 태도에 대한 의견

사례노인 15명 전원이 건강상의 문제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먼저 노후 와병생활에 대해서는 남자 노인보다 여자노인이 주변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노인들은 경제적 빈곤 때문에 질병 치료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자 노인에 비하여 남자 노인들이 건강에 대해서는 자포자기를 하고 있었으며, 80% 이상이 와병생활에서 벗어나는 길은 곧 죽음으로 귀결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상태에 대해서 90% 이상이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자녀들의 와병 노부모에 대한 태도에서는 사례 노인들 중 대부분이 부담스러워 하고 돌보지 않거나 심지어 방임·유기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사례노인들의 자녀들은 장기저인 와병으로 인하여 90%이상이 정신적 혹은 경제적으로 부양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3) 이동목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사례노인들이 이동목욕 서비스를 받게 된 경위는 주로 이동목욕 담당 사회복지

사의 권유에 의해서가 80%를 차지했다. 또한 사례노인들을 돌보는 가정도우미의 알선이 10% 정도였으며, 자신이 직접 이동목욕 서비스를 받고 싶어 신청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례노인들은 대부분 와병 중에 있으므로 외출이 어렵고 외부의 정보를 접하는데 용이하지 못한 상황에 처해있어 당연한 결과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또한 이동목욕 서비스 자체가 생소한 서비스이고 타인들에게 자신의 벗은 몸을 맡긴다는 일종의 수치심 등으로 쉽게 접근 할 수 없겠지만 담당 사회복지사의 친절한 설명과 권유로 편안한 서비스를 받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목욕 서비스 후의 감정 변화에 있어서는 사례노인 전원이 긍정적인 감정변화를 보였다. 이는 와병 노인들이어서 목욕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금으로서 수치료 효과를 보는데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이동목욕 서비스 후 신체가 청결해지면서 심리적으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노인이 90%였으며 목욕 횟수의 증가를 전원이 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봉사자의 태도에서는 사례노인 전원이 한결 같이 친절하고 자상하며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 나타났다. 아울러 이동목욕 서비스 사업에 바라는 것은 자신들만 이동목욕 서비스를 받는다는 죄책감이 80%를 차지하였고, 그리고 이동목욕 차량이 많이 보급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이 90% 이상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와병 노인들의 생활태도 및 인생회상

노인들의 최고의 전성기는 남자노인들은 젊었을 때를 40%, 여자노인의 경우에는 시집가서가 30%였으나 좋았던 때가 없었던 경우도 30%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후회스럽고 힘들었던 일에 대한 인식은 두 가지로 대별 할 수 있었는데. 남편의 외도, 불우한 결혼생활, 자식의 불효 등이 80%를 차지하였고, 병을 얻게된 시기나, 병세 초기에 병을 간파했던 일이 30%를 차지하였다. 또한 주위사람들에 대한 생각에서는 경제적 빈곤과 저교육과 저취업이 70%이상을 차지하였고, 인심이 야박하다가 20%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사회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생각에서는 사례노인 중 무관심이 80%를 차지했고, 이동목욕 서비스 수혜와 관련하여, 사회가 참 좋아졌다가 30%, 그리고 TV나 라디오를 통한 사회적 범죄 등으로 인한 부정적 생각이 40%를 차지하였다. 또 사례노인들이 인생을 다시 산다면 경제적 풍요를 90%, 그리고 여자 노인의 경우에는 좋은 남편 만남 30%, 주변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고 싶다가 40%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사례노인들의 현재 희망 사항에서는 가정의 평화와 자녀들의 행복이 80%였으며, 경제적 풍요로움이 60%를 차지했는데 이는 남은 여생을 편하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이 강하게 나타났다. 결국 중증와병사례 노인들은 자신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절망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으며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남은 여생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했다.

결과적으로 이동목욕서비스 사업은 장애인, 노인성 치매, 중풍, 중증장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와병 생활을 하고 있는 요보호 대상자에게 전천후 전자동 목욕장비가 설치된 이동목욕 차량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요보호 대상자의 위생, 청결상태 유지 및 요보호대상자 가족의 정서적, 신체적 부담 경감과 거동불편 노인 또는

장애노인을 대상으로 한 뇌졸중(중풍), 치매예방교육 및 장기질환 등으로 중병중인 노인, 정신지체, 척수마비, 근디스트로피 등의 중증 장애인에게 목욕서비스 제공이 지역사회 내에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목욕복지사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렇지만 초기단계에 있는 우리 나라의 이동목욕서비스 사업을 생산적 목욕복지 사업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동목욕서비스 사업을 지속적, 주기적으로 실시할 경우 치매 및 중풍환자의 위생상태 개선과 가족의 부양부담감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동목욕 사업이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

둘째, 이동목욕서비스 사업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동목욕 1회당 약 3만3천원의 고비용 목욕서비스인 만큼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하여 사업비를 절감하고 나아가 목욕횟수를 늘리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이동목욕시 위생관리 및 전문교육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동목욕 차량은 특수차량이므로 안전관리는 물론 전자동 이동목욕 차량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대상자 및 목욕서비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고 또한 자신의 신체를 드러내야 하는 대상자들의 심리적 측면을 적절히 파악하여 라포(Rapport)를 형성하는 체계적인 교육이 수행되어야 한다. 특히 목욕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부터의 감염, 목욕에 사용된 욕조용 기구 등으로 부터의 감염, 목욕시 공기 등으로 부터의 감염 등 이동목욕서비스가 원인이 되어 클라이언트에게 전염성 질환을 감염시키지 않도록 목욕 개호시 주의해야할 위생관리 교육을 포함한다.

넷째, 이동목욕서비스는 보건간호서비스의 일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특히 환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목욕 및 간호가 중요한 사업일 수 있다. 왜냐하면 와병노인의 목욕은 건강한 사람과 달리 예비력이 감퇴되어 설 수 없음을 물론 앉기조차 어려워 누워만 있는 상태이므로 체력의 소모를 최소한으로 하여 겨우 생리기능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목욕으로 인한 의외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농후하기 때문에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안전장치로 안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등의 안전사고 방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섯째, 이동목욕서비스 사업의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시설내에 목욕시설을 설치하여 이동목욕 차량과 병행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앞으로 공공보건 의료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신축하게 되는 경우 목욕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초보적 단계에 있는 우리 나라 이동목욕서비스 사업의 활성화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나아가 입욕복지의 보급과 향상을 목적으로 의학계와 사회복지계의 권위 있는 학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이동목욕복지연구회(가칭)의 조직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입욕개호의 안정성과 쾌적성을 바탕으로 누워서만 지내는 노인의 입욕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과 사용욕조의 위생학적 임상실험을 통해 입욕개호의 의학적 가이드라인의 체계화를 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각종 세미나, 연수교육을 통한 목욕서비스 복지와 가정개호에 관한 학술적 조사·연구활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김경동·어은죽, 『사회조사방법론』, 서울 : 형설출판사, 1998.

김상규. “노인과 가정”. 『현대사회와 노인복지』. 서울 :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983

김성순. “산업사회에 있어서의 노인복지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논문. 1984.

김태현. 『노년학』. 서울. 교문사. 1995.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 국고보조안내, 2000

성내종합사회복지관, 이동목욕 자료집, 미간행물, 1997.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과 내부자료, 2000

이근홍, “재가노인의 케이스 매니지먼트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99

여름호, 한국노인복지학회, 1999.

임춘식, 『현대사회와 노인문제』, 서울 : 유풍출판사, 1991.

_____,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노인복지연구 98 창간호, 한국노인복지학회, 1998.

_____, “이동목욕차량 개발모형”, 미간행물, 1997

장인협·최성재(1999),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p. 268.

최준영·한내창. 『노인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복지정책』. 서울 : 도서출판 월산.

1995.

평화종합사회복지관, 이동목욕 사업안내, 1997

_____, 이동목욕 사업지침, 1997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노인의 생활과 의식구조, 1990.

국외문헌

Knodel, "Focus group discussions for social science research : A Practical guide with an emphasis on the topic of ageing", comparative study of the elderly in Asia, No 90-22. Population studies center, university of Michigan. 1990.

Kutza, E.A. The benefits of Old Ag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1.

ABSTRACT

A Case Study on the Aged Benefitting from the Bathing Service of the Mobile Bathing Car

- Focused on the Aged Benefitting from
Bathing Service in Nowon-ku, Seoul-

Cho, Man-ho

Major in Social Welfare

Dep. of Welfare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was intended to make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iving attitude of the beneficiary from the bathing service of the mobile bath car effected by the Pyounghwa Comprehensive Social Well-being Center located in Nowon-ku, Seoul. The individual in-depth research method,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was used as the research method. This study was focused on the issues related to health and sanitation such as how the aged lived a bed-ridden life at home through their one-day life cycle and daily affairs, what

was the problem of the physical cleanliness for their current sanitary health and how much they were satisfied with mobile bathing service. 7 male and 8 female old people comparatively able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were selected from the aged benefitting from the mobile bathing project.

The mobile bathing service project was intended for those living a bed-ridden life for a long time due to senile dementia, palsy, serious handicaps and the like. That is, it was intended to help them maintain the good sanitary and clean condition, relieve their family of emotional and physical burden and provide hard-to-act and handicapped old people with preventive education on palsy and dementia and to provide bathing service for the elderly afflicted with serious complications resulting from long disorders, mental troubles, spinal paralysis, the seriously handicapped from muscle dystrophy and the like. It is highly evaluated as the well-being project that is drawing attention to the local community.

An attempt was made to present an realistic alternative to activating our mobile bathing service project in infancy into the productive bathing well-being on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xpand and implement the mobile bathing project because the periodic and continual implementation of the mobile bathing service project can improve the sanitary state of the patients afflicted with palsy and

dementia and mitigate the burden of their family.

Seco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plan to raise the efficiency of the mobile bathing service project.

Third, sanitation management and specialized educational activity should be systematically provided at a time of mobile bathing service.

Fourth, mobile bathing service can be thought to be a kind of health nursing service and especially, comfortable and safe bath and nursing for patients may be the important project.

Fifth,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scheme to establish the bathing facility within the social well-being facility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mobile bathing service and provide bathing service with mobile bathing vehicle service.

Sixth, it is necessary to organize the(tentatively called) mobile bathing well-being research institute composed of authoritative scholars and specialists from the medical community and the social well-being community with an aim of activating our mobile bathing service in infancy, enhancing the qualitative level of service and further, spreading and improving bathing well-being.